

2012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ISSN 2093-2111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for ODA Policy in South Korea)

KOICA Development Policy Focus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KOICA**
WORLD'S FRIEND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825 Daewangpangyo-ro, Siheu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833, Korea
T. 031-740-0114 F.82-31-740-0655
<http://www.koica.go.kr>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제 14 호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for ODA Policy in South Korea)

저자

임 소 진

現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Email: sjlim@koica.go.kr)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개발정책학 박사

▶ 주요 연구 실적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년 2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 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과와 한국 ODA의 과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3호, 한국국제협력단, 2011.
- 부산총회의 결과와 KOICA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함의, 국제개발협력 2011년 4호, 한국국제협력단, 2011.
- Western Inspired Paris Declaration: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ing Paper No. 4, Manchester: Centre for Organisations in Development, 2011.
- Chinese Aid Policy and Practice in Africa: Issues to Address in Tanzania, Conference Paper, British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10.
- China and Africa: Implications for Advanced Donors, Conference Paper, Association for Heterodox Economics, 2010.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 초록	01
Executive Summary	03
1. 서 론	04
2. MDGs의 이행현황 및 한계	07
2.1. MDGs 이행현황 분석	08
2.2. MDGs의 의의와 한계점	09
3. 국제사회의 MDGs 달성 기여 노력	12
3.1. 영국	15
3.2. 호주	18
3.3. 한국	24
4.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28
4.1.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를 위한 주요 논의	28
4.2. 향후 Post-2015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36
5.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한국의 기여방안	39
참고 문헌	45
첨 부	5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Post-2015 체제수립 과정에 있어서 한국 ODA의 기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논의의 주요 핵심 및 동향, 그리고 향후 Post-2015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정부의 Post-2015 체제 수립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ODA의 필요한 변화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1년 MDGs 개발 이후, 특히 공여국은 MDGs 달성을 위해 주로 Goal 8을 중심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및 호주는 ‘정책-이행-평가’의 체계를 바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MDGs 달성 기여 노력을 확대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MDG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KOICA의 ‘정책-이행-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부 공여국은 MDGs의 달성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공여국은 M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제도적 변화는 이후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2015년 MDGs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한편, 국제사회는 MDGs 달성기한 이후의 글로벌 과제 및 목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현재까지 Post-2015 프레임워크에 대한 주요 논의 동향은 크게 1) ‘2015년으로 합의된 MDGs의 이행목표 연장’, 2) ‘기존의 MDGs 목표를 기준으로 연구 및 협의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목표 설정’, 3)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 제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Post-2015 프레임워크를 위한 이 3가지 옵션 중 MDGs를 2020년 또는 202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합의는 가장 쉬울 수 있겠으나 정치적으로 큰 호응은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기존 MDGs의 재구성을 통한 Post-2015 프레임워크 개발’ 또는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 수립’ 옵션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 SDGs) 중 MDGs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발전시키고, G20 및 Post-Busan의 논의내용과 연계하여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설립은 최상의 시나리오의 경우 UN의 개발과정을 거쳐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최종 합의가 될 수 있겠으나, 마지막까지 국제적인 컨센

서스에 도달하지 못하여 2015년 이후까지 Post-2015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위의 세 가지 옵션이 명확히 분리되어 한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옵션의 일부를 모아서 혼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Hybrid Theory). 또는 예상치 못하게 국제사회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한 상태로 2015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Car Crash Theory). 따라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는 ‘어떻게 가장 좋은 옵션을 조합하느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한국 정부는 ‘국제 Post-2015 체제 수립 과정 참여방안’과 ‘Post-2015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발전방안’의 두 방향의 기여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국제 Post-2015 체제 수립 과정 참여방안을 위해 ‘민-관 포럼’과 산하 연구팀을 구성하여 Post-2015 아젠다 형성과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제안하고자 하는 Post-2015 글로벌 목표는 SDGs 중 MDGs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개발하고, G20와 특히 Post-Busan 체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의 Post-2015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현 MDGs 이행 기여과정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 공여국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는 의미로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원조규모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 및 이행기관의 ‘정책-이행-M&E’의 순환구조 체계마련을 통해 국제사회의 Post-2015 글로벌 목표 이행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MDGs 달성 기여과정에 있어서 ‘정책-이행-M&E’ 프레임워크를 위한 전체적인 ‘매핑(mapping)’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MDGs 및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효과적 원조이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KOICA 내부적으로도 전략-사업-평가 순환구조 프레임워크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원조정책과 외교부 및 KOICA 원조지원 전략의 ‘공식화’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백서차원의 원조정책 제시를 시작으로 ‘정책-이행-M&E’ 프레임워크의 전정부적 매핑(mapping)을 수립하여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has explored the current debat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examined main discussion about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and analysed how donor countries have contributed to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doing so,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policy recommendation fo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r the future global goals after 2015. Accordingly, this research has a particular focus on the ‘policy – implementation – monitoring and evaluation’ public policy cycle in assessing the efforts and contribution to achieving the MDGs of donor agencies.

This paper has addressed that the aid policies of both the United Kingdom (UK) and Australia is outlined in White Papers. As part of the policies, both governments have developed whole of ODA budget strategy and results framework, both which aim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s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MDGs. However,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provided such mechanism not only in achieving the MDGs but also in managing aid overall. In light of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duct a mapping process for the ‘policy–implementation–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 based on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in the overall aid system, so that i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Post-2015 global goals in the future.

In the meantime, this study has analysed current global discuss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and has pointed out that there are three major approaches to the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1) MDGs 2020/2025; 2) MDGs-Plus/MDGs 2.0; 3) New Global Goal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develop and provide the Post-2015 agenda partially fro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MDGs, and by linking the agenda with discussion of the G20 and the Busan Global Partnership. In the end, this study ha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introduce a ‘Public-Private Forum’ including th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s) in order to produce useful suggestions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gime in developing the Post-2015 Framework.

1. 서론

2000년 189개 UN 회원국¹⁾은 전 세계 빈곤감소와 발전을 위한 총 8개의 글로벌 목표(goals)로 이루어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15년을 목표로 한 MDGs의 이행 완료기간이 가까워지면서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Post-2015 국제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UN은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 이후 UNDG)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MDGs 달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유엔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이후 UNDP)은 UN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후 UNDESA)과 함께 DESA/UNDP 작업반을 구성하여 Post-2015 UN 개발 아젠다를 위한 통합된 비전 및 로드맵 개발과정에 있다(UNDP, 2011). UNDESA/UNDP 작업반은 Post-2015 아젠다 형성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 UNDG와 협력하여 모든 개발협력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은 2012년까지 Post-2015 과제 및 방향성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초연구의 결과가 발표된 후 정부간 협의과정 및 국제사회의 Post-2015 프레임워크 합의를 위한 준비과정이 공식화 될 예정이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과 독일 등은 국가기관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2011년 후반부터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및 아젠다 설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²⁾ 일본 정부도 2011년 후반부터 Post-2015 정보그룹(Contact Group)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³⁾ 일본이 주최하고 있는 Post-2015 정보그룹 회의는 일본과 영국, 그리고 다자기구 및 빌게이츠재단 및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Post-2015 정보그룹 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니즈(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Post-2015 아젠다 형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2013년 제4차 유럽개발보고서(European

1) 2000년 MDGs 채택 이후 4개 국가가 추가적으로 UN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02년 스위스와 동티모르, 2006년 몬테네그로, 2011년 남수단), 현재 UN 회원국은 총 19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예1 : 2011년 10월 26-27일,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와 UNDP 공동 주최, '개발을 위한 Post-2015 프레임워크 (A Post-2015 Framework for Development: Starting a Substantive Conversation)' 워크숍

예2 : 2011년 11월 21-23일,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독일개발연구소(German Development Institute, DIE). 그리고 빈곤퇴치·평등·성장 네트워크(Poverty Reduction, Equity and Growth Network, PEGNet) 공동주최, 'MDGs와 그 이후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Beyond: Reflections on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fter 2015)' 국제워크숍

3) Post-2015 정보그룹은 2012년 5월 17일-18일 일본 동경 JICA 연구소에서 제3차 회의를 통해 Post-2015 체제 UN 회의 결과문서의 구성과 포함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Report on Development, ERD)를 통해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컨센서스 논의 과정에서 유럽의 독자적 기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⁴⁾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지 않았다. 2012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이후 KDI)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외교통상부(이후,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는 기관 차원의 활동이었으며 정부차원의 Post-2015 체제 준비과정은 아니었다. 물론 2012년 10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이후, KOICA)은 외교부와 함께 제6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Post-2015 아젠다 형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회의라기 보다는 오히려 Post-Busan 이행과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외 KOICA는 ‘한-UNDP MDGs 신탁기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Post-2015 아젠다 형성을 위한 국제협의(global conversation) 지원사업’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Post-2015 체제 준비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를 비롯한 KOICA는 Post-2015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 MDGs 달성 현황, 2) MDGs의 의의 및 한계점, 3) 국제사회의 MDGs 달성을 위한 기여 노력, 그리고 4) Post-2015 아젠다 형성과정을 위한 국제논의 동향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Post-2015 체제수립에 대한 한국 ODA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 연구목표와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주 연구목표

- Post-2015 체제수립 과정에 있어서 한국 ODA의 기여방안 모색

▣ 세부 연구목표

-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논의의 주요 핵심 및 동향 그리고 향후 Post-2015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정부의 Post-2015 체제 수립 참여 방안 모색
-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한국 ODA의 필요한 변화 및 발전방안 모색

4) 예 : 2012년 2월 29일, OECD 주최, 2013 유럽개발보고서 민관협의(Public Consultation on the 2013 European Report on Development), ‘변화하는 세계속의 개발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Elements for a Post-2015 Global Agenda)’

본 연구는 더불어 한국 개발협력 관계자들의 2015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체제 및 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정부 및 KOICA의 Post-2015 글로벌 과제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분석방법이며, 연구의 사전 준비과정에서 공여기관의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메일 인터뷰는 ‘정책-이행-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이후 M&E)’의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한 공여기관의 MDGs 달성 기여 노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전 인터뷰에 응답한 국가는 영국과 호주의 2개 국가 뿐이었다. 사전 인터뷰 이외에도 문헌상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관련자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 외에 Post-2015 아젠다 형성과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설립 방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MDGs의 수립배경 및 개발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최근 MDGs 이행현황과 함께 MDGs의 의의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MDGs의 수립배경을 포함한 이유는 MDGs 수립배경 및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가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 수립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MDGs의 한계점 분석에 앞서 MDGs가 가지는 의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MDGs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2000년 이후 지속된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사전 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공여기관의 MDGs 이행달성을 위한 기여 과정에 대한 이메일 인터뷰에 응답한 영국과 호주를 한국과의 비교 사례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Post-2015 국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또한 향후 2015년까지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이후 Post-2015 체제 출범 전후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기여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MDGs의 이행현황 및 한계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세계화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빈곤과 개발 논의에 있어서 젠더, 식량, 주거, 환경, 인권과 같은 다양한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3년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와 사회개발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그리고 1997년 세계주거회의(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를 통해 세계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배진수 외, 2006). 예를 들어, 1995년에 열린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의 개념이 도입되고, 경제·정치·사회부문의 발전과 빈곤퇴치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 개발협력 회의와 함께, 1996년에 열린 OECD 고위급회의에서는 ‘OECD DAC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이 개발되어 이후 MDGs 개발의 근간이 되었다(UNDP, 1996). 원조부분의 효과적 협력을 위해 개도국의 주인의식과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은 7가지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이후 IDGs)를 제시하였다. 첨부1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IDGs는 MDGs 8개 목표 중 Goal 8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와 일치한다.

2000년 3월 OECD, UN, 세계은행, IMF는 합동포럼을 주최하여 1990년대에 설정된 다양한 국제 개발목표를 평가하고, 같은 해 6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계를 위해(A Better World for All: Progress toward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IDGs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배진수 외, 2006). 그 사이 4월에는 UN 사무총장이 밀레니엄 보고서(Millennium Report)로 알려진 ‘21세기 UN의 역할(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전 세계 1일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감소할 것을 촉구하였다(UN, 2000a). 그리고 같은 해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UN 회원국들이 ‘UN 밀레니엄 선언(UN Millennium Declaration)(A/RES/55/2)’을 채택하면서 비로소 MDGs의 기본적 틀이 완성되기 시작하였다(UN, 2000b). UN 밀레니엄 선언은 OECD 21세기 개발협력전략 및 1990년대에 개최된 여러 국제 개발협력 회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된 후, 각국의 정상들은 2001년 6월 밀레니엄 선언의 내용과 OECD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의 IDGs를 UN MDGs로 통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UN 총회 이후 ‘UN 새천년선언 이행을 위한 로드맵(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56/326)’을 발간하면서 MDGs의 8개 주요목표(이후 Goal)와 18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UN, 2001). 이후 2008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18개 세부목표가 총 21개로 확장되었다 (첨부2 참고). 특히 세부목표 1에서 2001년 MDGs 개발 당시 1일 소득 ‘1달러’가 기준이었던 것을 2009년부터 1.25달러로 변경되었다 (World Bank, 2009). 세부목표 2는 원래 Goal 8에 해당하는 세부목표 16이었으나 2008년부터 Goal 1의 세부목표 2로 변경되었다 (우동완 외, 2009). 2001년 MDGs 개발 이후, UN은 해마다 MDGs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사회의 MDGs 이행상황을 보고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최근 UN MDGs 보고서인 2011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MDGs 이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분석하였다. 더 자세한 이행현황은 본 연구의 첨부3에서 정리하였다.

2.1. MDGs 이행현황 분석

UN MDGs 보고서(2011년)에 따르면 2015년까지 MDGs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MDGs 보고서에서는 총 21개의 세부목표 중 세부목표 17과 18을 하나로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세부목표 20에 대한 이행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첨부2 참고). 2001년 보고서에 보고된 19개 세부목표 중 다음의 4개 세부목표만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1990-2015년간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 (세부목표 1.1)
-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세부목표 2.1)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비율 반감 (세부목표 7.3)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 (세부목표 8.6)

2011년 MDGs 보고서에 의하면 Goal 6의 마지막 세부목표인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저지 및 감소’와 관련된 각종 질병 중 ‘결핵감염률과 결핵사망률’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세부목표 6.3은 일부만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세부목표 3.1인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 초·중등교육 2005년까지, 모든 교육 2015년까지 제거’는 달성이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그 여부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8개 세부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나머지 6개 세부목표는 달성 가능 여부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 제공 (세부목표 1.2)
- 1990-2015년간 기아 인구 비율 반감 (세부목표 1.3)
-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세부목표 5.1)
-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세부목표 5.2)
- 2015년까지 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세부목표 6.1)
- 2010년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HIV/AIDS 치료의 보편적 보급 (세부목표 6.2)
-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의 현저한 저하 (세부목표 7.2)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 (세부목표 7.3)

위와 같은 MDGs 달성 정도는 개도국별로 편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umner and Tiwari, 2010). 예를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에 있어서, 약 35개 국가에서는 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Stijns et al., 2012). 특히 서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MDGs 달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노력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Addison et al., 2005a; Easterly, 2007). 또한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해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원조규모와 비교하여 약 세배에 달하는 규모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 뿐 아니라 비원조 재원이 함께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재원의 확대 뿐 아니라 개발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Stijns et al., 2012).

2.2. MDGs의 의의와 한계점

우선, MDGs는 경제발전 중심의 개발을 탈피하여 사회발전 그리고 특히 인간개발을 강조하는 결과중심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로벌 목표로 개발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Hulme, 2007; Vandemoortele, 2011). 특히 MDGs는 결과중심의 원조관리를 위한 글로벌 규범(global norm)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또한 공여국들은 M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개도국에서는 MDGs를 중심으로 한 빈곤퇴치가 국가정책의 우선사항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Melamed and Scott, 2011; Vandemoortele, 2011).

그러나 반면 MDGs가 사회발전과 인간개발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 및 보건분야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발전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Sumner and Tiwari, 2010; UNECA, 2012). 뿐만 아니라 MDGs는 불평등,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안보, 환경지속성 및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야별 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UNECA, 2012). 다만, Post-2015 체제에서 이러한 이슈를 무조건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2015년 이후 글로벌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개도국 개발과 관련성이 높으며 중요한 최근 글로벌 이슈를 선택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MDGs 이행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inequality)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Hulme and Wilkinson, 2012; Melamed, 2012b; UNECA, 2012). 사실상 일부 개도국에서 MDGs 이행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는 국가 내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UN, 2011a; KDI-UNDP, 2012).

한편, MDGs 달성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로서 경제공황, 식량부족, 자연재해와 같은 국제적 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간 MDGs 달성여부의 격차는 이러한 국제적인 이유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Go and Timmer, 2011). 그리고 MDGs 목표달성을 위한 공여국과 개도국 간의 정책 일치와 개도국 내 원조 분절화 감소, 비구속 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행동변화, 그리고 공여국 간 원조 활동의 정책일관성 부족이 MDGs 달성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 (Addison et al., 2005b).

그러나 무엇보다도 MDGs 달성이 힘든 이유는 MDGs 자체가 도전적(ambitious) 과제이기 때문이다. MDGs가 현실적으로 이행 또는 달성이 어려운 도전적 과제라고 보는 이유는 모든 개도국들의 개발전략 및 국가정책이 MDGs 달성을 위해 수립되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Karver et al., 2012).

다음으로, MDGs가 소수 선진공여국의 주도로 개발되어 개도국의 필요 및 MDGs 이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MDGs의 큰 한계로 분석되고 있다 (Singh, 2011; Melamed, 2012a; UNECA, 2012). 즉, MDGs 이행을 위한 기준점(baseline)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것과, 특히 취약한(vulnerable) 국가 및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UN, 2011a). 이는 MDGs 목표별 이행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가 크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axwell, 2003; Chakravarty and Majumder, 2008).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가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인 ‘하나의 기준이 모든 국가에 적합하다(One size fits all)’라는 오류가 MDGs에서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Vandemoortele, 2011). 즉, 서로 시작점이 다른 개도국들이 동일한 목표치를 동일한 기간 동안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별 기초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이 모두에게 적합하다’라는 오류를 또다시 범하게 된 것이다.

MDGs 달성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개도국에게만 MDGs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MDGs 이행이 공여국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처럼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우동완 외, 2009). 예를 들어, UN은 독립적 자문위원회에 의한 2005년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Project)를 통해 ‘MDGs 달성을 위한 실질적 계획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발표하였으나 (UN Millennium Project, 2005), 이 계획은 주로 개도국들의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전략 수립 및 MDGs와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여국 개개의 입장에서 볼 때, 공여국별 원조의 MDGs 이행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MDGs 이행이 마치 개도국만의 책무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Langford, 2011; Melamed, 2012a).

그리고 MDGs 달성정도 평가를 위한 정량화 된 평가방법은 개발의 ‘질(quality)적 향상’에 대한 부분에서 있어서 과제로 남고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Melamed, 2012b).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률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UNECA, 2012). MDGs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대상 인구조사에서 조사 가능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에 지나지 않았다 (UN, 2011b).

마지막으로, MDGs가 글로벌 차원의 목표라고 하지만 과연 MDGs 이행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MDGs의 한계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MDGs는 글로벌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단위의 목표로 이행되고, 국가차원에서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UNECA, 2012). 또한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은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공여국들은 이와 같은 MDGs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MDGs 달성 노력을 지속해 왔다.

3. 국제사회의 MDGs 달성 기여 노력

본 연구는 제2장의 MDGs의 한계점 분석에서 개도국만이 의무적으로 MDGs 이행 경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공여국의 MDGs 이행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극단적으로는 MDGs 이행은 개도국만의 책임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MDGs는 분명 공여국이 함께 참여해야 할 글로벌 이행목표이다. 특히 MDGs는 Goal 8의 글로벌파트너십을 통해 공여국의 원조규모 향상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여국들은 MDGs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공여국 전체적으로는 MDGs Goal 8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오고 있고, 특히 몬테레이 컨센서스 합의 이행 및 파리선언과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통해 원조와 개발협력 효과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즉, 공여국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2년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의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개발재원회의 (International Financing and Development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국제 개발협력 주최들은 이 회의에서 개발을 위한 재정협력 및 기술협력을 증가하기로 합의한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도출하였다.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공여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과 함께, 개도국의 주인의식, 상호책임성, 그리고 원조제공 과정에서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OECD, 2003 & 2005).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열린 이듬해인 2003년, OECD 국가들의 MDGs 달성을 위한 원조과정의 개선 논의를 위해 ‘제1차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이후 HLF)’이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 로마회의 이후, 2004년 제2차 국제 개발결과 관리(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이후 MfDR)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합동 마라케 각서’를 통해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논의된 새로운 파트너십 아젠다와 로마선언의 ‘조화’에 대한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였다 (MfDR, 2007 & 2008).

2003년 로마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원조효과성을 위한 제2차 HLF’가 열렸다.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은 제2차 HLF에서 합의된 파리선언을 통해 5대원칙과 13개 지표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파리선언 이후, 제3차 MfDR이 2007년 하노이에서 열려 파리선언과 MDGs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08년에는 제3차 HLF가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사회는 제3차 HLF에서 아크라행동강령에 합의함으로써 시민사회와 남남 및 삼각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차별화 된 원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소진, 2012). 아크라 HLF에서는 제4차 MfDR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개발결과 관리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촉구하였다 (MfDR, 2007 & 2008). 마침내 2011년에 이르러 제4차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고위급회담(HLF-4 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 한국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총회 이전의 HLF가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과 비교하여 부산총회에서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의 연계를 강조하였다.⁵⁾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여국의 MDGs 달성을 위한 기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DGs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합의된 원조효과성 제고와 파리선언의 이행에 있어서 13개 지표 중 1개만이 달성되었고, 공여국별 행동변화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2011). MDGs 달성 및 Post-2015 글로벌 체제를 고려한 부산파트너십 지표 개발과정에서도 역시 공여국별로 이해관계, 관심분야 및 국제개발협력 컨센서스에 대한 참여도가 달랐다 (임소진, 2012). 이는 곧 MDGs 달성 노력에 관하여 공여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도국별 MDGs 달성정도 평가와는 다르게 공여국의 M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간단하지가 않다. 단편적으로 보면 MDGs는 결국 글로벌 공공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별 공여국의 MDGs 달성 기여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공여국 전체의 공동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본 장의 앞부분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Goal 8을 중심으로 한 MDGs를 우선시 하고 있다. 공여국들은 국가별 원조규모 확대 뿐 아니라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을 통해 Goal 8 달성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선진공여국들의 경우는 EU를 중심으로 한 협력도 포함하여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배진수 외, 2006; Kenny and Sumnet, 2011).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DAC 공여국들은 MDGs를 원조지원 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하여 공여국 원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거나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MDGs 목표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기여를 공여국 정부의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이유(rationale)로 제시하고 있다 (Melamed, 2011).

한편 공여국들이 Goal 8을 중심으로 원조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EU를 포함한 총 21개 공여국의 원조정책을 조사한 결과, MDGs Goal 8을 제외한 7가지 목표와 그 이외의 사항이 원조정책의 우선사항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참고).

5)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자세한 내용은 '임소진 (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 참고

[표 1] 공여국 원조정책과 MDGs (2003년-2007년)

원조정책의 주제별 우선 고려사항	우선사항 고려 국가수 / 전체국가수
MDGs Goal 1 : 빈곤	13/21
MDGs Goal 2 : 교육	15/21
MDGs Goal 3, 4, 5 : 보건	14/21
MDGs Goal 6 : HIV/AIDS 및 질병	12/21
MDGs Goal 7 : 식수와 위생	10/21
MDGs Goal 7 : 환경	19/21
인권	17/21
거버넌스	15/21
평화와 안보	15/21
민주주의	14/21

출처 : 저자 재구성 / 참고문헌 : Kenny and Sumner, 2011: 6

그러나 개도국의 MDGs 달성을 위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유(rationale)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조의 효과성 및 MDGs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증가와 원조가 과연 중소득국에게도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져 가면서,⁶⁾ 원조의 가치(value for money, 이후 VfM)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었다 (Melamed, 2011). 이에 따라, 일부 선진공여국은 공여기관의 MDGs 달성 노력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후 DFID)의 원조가 MDGs 이행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MDGs와 관련한 결과중심의 프레임워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었다 (DFID 인터뷰, 201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영국정부의 MDGs 달성 기여 노력을 ‘정책-이행-M&E’의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후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MDGs와 관련된 원조정책 및 국가별전략, 그리고 평가의 연계가 영국처럼 체계적이지는 못하나, 다른 공여국에 비해 MDGs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개가 잘 되고 있는 호주의 경우도 살펴보고자 한다.⁷⁾ 또한 한국정부와의 비교를 위해 본 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MDGs 달성 기여 노력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6) 중소득국 중에는 신흥경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국가들을 포함한 남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국가들은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LICs)과 최빈개도국(Least Developing Countries, LDCs)과 차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소진, 2012).

7) 본 연구는 연구 착수단계에서 OECD DAC 공여기관에 이메일을 통한 사전 서면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위해 공여기관이 MDGs 달성 기여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정책 및 전략과 공여기관의 MDGs에 대한 기여도 평가방법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였으나, 영국과 호주 2개국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웹사이트 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 공여국의 MDGs 달성 기여 노력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이다.

3.1. 영국

영국은 DFID가 원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DFID는 독립된 개발협력 부처로서, 기타 정부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 조율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미 외, 2009). 따라서 영국 정부의 원조정책은 DFID가 발간하는 ‘백서’에 제시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영국의 개발백서는 1957년, 1963년, 1965년, 1967년, 1975년, 1997년, 2000년, 2006년 그리고 2009년에 발간되었으며, 발간시기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영국노동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만 백서가 출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영국보수당은 국가 원조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당은 노동당에 비해 국제개발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White, 1998).

■ 원조정책과 MDGs

2000년 이후 발간된 백서를 살펴보면 (2006년과 2009년), 영국의 국제개발 정책에 있어서 큰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MDGs임을 알 수 있다 (DFID, 2006b & 2009b). 특히 가장 최근의 2009년 백서를 통해 영국정부의 MDGs 달성의지와 재정적 지원 강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백서에는 MDGs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2013년까지 개발지원 예산에 국가수입의 0.7%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MDGs 목표별 지원정책 및 행동방안과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DFID, 2009b).

한편, 영국노동당은 개발백서와 함께 ‘종합지출검토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이후 CSR)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0년 CSR을 살펴보면 DFID의 2009년 개발백서의 목표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K HM Treasury, 2010). 즉, 영국정부는 CSR에서 원조지원을 2013년까지 GNI 대비 0.7%로 증가하겠다는 목표달성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백서에서 제시한 MDGs 목표달성 지원을 위해 국가수입의 0.7%를 개발재원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8) CSR 보고서는 개도국 개발을 위한 영국정부의 재정재원 확대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기관합의서(Public Service Agreement, PSA) 목표 설정을 위한 중요한 보고서로 이용되고 있다 (Morrissey, 2002). 또한, CSR은 DFID의 원조예산이 영국의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CSR 보고서는 1998년 최초로 발간되었고,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CSR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UK HM Treasury, 2010).

■ MDGs 달성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

DFID는 M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리선언 이행 행동방안(DFID's Medium Term Action Plan on Aid Effectiveness)을 별도로 수립하여 국제, 지역, 기관, 일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DFID, 2006a). 그리고 이는 DFID의 업무평가보고서(Autumn Performance Report, 이후 APR)에 반영되어 유기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DFID는 국별지원계획(Country Assistance Plan, 이후 CAP)을 수립하여 수원국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DFID CAP은 원래 MDGs 달성을 위한 개도국 내 DFID 장기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개발되었다 (DFID, 2007a). 예를 들어, DFID는 탄자니아 CAP에서 6가지 중기프로그램변화(Medium-Term Programmatic Changes, MTCs) 전략과 관리프레임워크(MTC 7)를 수립하여 탄자니아의 MDGs 달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DFID, 2007b). 그러나 DFID의 탄자니아 CAP 문서 자체로는 중기프로그램변화 전략을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DFID는 구체적 이행단계에서의 행동방안을 위하여 DFID 탄자니아 지원 중기 운영계획(5년)을 수립하여 업무단계에서 구체적인 전략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운영계획은 해마다 평가를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되어있다 (DFID, 2011c). 특히 DFID의 국가별 중기 운영계획은 해당 개도국의 MDGs 달성이 가능한 부분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FID의 CAP과 중기 운영계획은 모두 파리선언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DFID는 개도국별 중기 운영계획을 통해 개도국과 함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는 ‘문화’ 형성과 개도국의 평가 역량 강화를 평가항목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DFID, 2011c).

■ 원조기관 MDGs 기여도 평가

개도국 MDGs 이행을 위한 공여국 원조기관의 기여 결과 측정을 위한 영국 정부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DFID 인터뷰, 2012).

- 1단계 (Level 1) : DFID가 지원하는 개도국의 MDGs 지표에 의거한 개발성과 향상 정도(progress) 평가
- 2단계 (Level 2) : DFID 지원에 의한 결과 평가(Results attributable to DFID)
- 3단계 (Level 3) : 운영(사업수행)단계의 효과성
- 4단계 (Level 4) : 조직효과성

위와 같은 4단계 결과 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를 통한 DFID의 MDGs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2012년 6월에 발간된 DFID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AR)⁹⁾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DFID 인터뷰, 2012). 사실상 위의 4단계 중 MDG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평가는 첫 두 단계이며 (DFID 인터뷰, 2012), 이 두 단계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보고서에서는 아직 새롭게 개발된 1단계 결과 측정방법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1단계 평가결과는 대부분 기존 연간보고서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DFID, 2012). DFID의 새로운 결과 프레임워크 1단계에 해당하는 평가부분에서 이용된 기존 연간보고서 평가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지역별 MDGs 8대 목표 달성정도를 UN과 국제통계시스템에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DFID가 구분하고 있는 지역별 MDGs 달성정도 평가 4단계는 다음과 같다.

- 초록단계 : 달성 또는 달성가능
- 노랑단계 : 진전은 있으나 달성가능성 희박
- 빨강단계 : 달성불가능 및 진전사항 없음
- 회색단계 : 평가를 위한 정보부족

결과 프레임워크 1단계 평가를 위한 기존 연간보고서의 두 번째 평가방법은 DFID의 27개 중점국을 대상으로 한 옥스퍼드 정책관리연구소(Oxford Policy Management, OPM)와 함께 DFID가 개발한 평가방법이다. 이 방법은 MDGs 8개 목표별 개도국의 MDGs 달성 성과여부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성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DFID, 2011a & 2012).

DFID의 MDGs 기여도 평가 프레임워크 중 2단계는 DFID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출물(output)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DFID, 2012). 사실 DFID의 4단계 결과프레임워크는 MDGs 달성 기여도 평가만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단계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요 개발 성과 지표로 MDGs가 설정됨에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는 자동적으로 DFID의 MDGs 달성 기여 평가의 척도가 된 것이다 (DFID 인터뷰, 2012).

참고로, DFID 결과 프레임워크의 3단계는 DFID 원조 사업수행의 VfM과 개발을 위한 결과 창출 노력을 평가한다. 이는 즉, DFID의 사업수행(operation)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12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보이다. 이 3단계 평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9) DFID는 연간보고서를 통해서 DFID 예산집행의 종합적인 보고를 공개하고 있다 (DFID, 2011b).

- 포트폴리오의 질 (portfolio quality)
- 사업수행과정 (pipeline delivery)
- 모니터링과 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
- 구조적 개선 (structural reform)

하지만 이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더욱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 4단계는 DFID의 늘어나는 원조사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과제와 직결하여 DFID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평가는 DFID의 조직효율성의 향상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DFID, 2012).

DFID는 이 밖에 MDGs 기여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합의서(Public Service Agreement, 이후 PSA)¹⁰⁾의 PSA 29와 DFID 전략적 목표와 지표(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s and Indicators, 이후 DSOs)를 이용한 APR을 발간해오고 있다. APR의 PSA 29 평가 부분은 MDGs의 8개 목표를 중심으로 DFID의 업무평가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조백서에 제시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DFID, 2009a). APR에서 MDGs 8개 목표별로 평가된 개도국은 크게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22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PR의 DSOs 평가부분은 총 6개의 DSOs를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각 항목별 지표가 주어진다. 특히 DSO 4의 지표 4.1은 MDGs 달성을 위한 정책에 기반한 수준 높은 연구와 증거수집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DSO 5의 지표 5.1과 DSO 6의 지표 6.1은 모두 파리선언 공약 이행에 관한 DFID의 업무향상 정도를 평가하여 DFID의 원조효과성 제고 및 MDGs 달성에 대한 기여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DFID, 2009a).

3.2. 호주

호주의 원조정책은 외교부에서 수립되고, 이를 외교부 산하 집행기관인 호주국제개발집행기구(Australia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후 AusAID)에서 이행한다. AusAID는 호주 총 원조규모의 85%를 운용, 그 외 재무부, 기후변화부, 연방경찰 등의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나머지 15%를 운용한다. 호주의 정부기관에서 집행된 원조사업의 정보는 AusAID가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은미 외, 2009).

호주 정부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원조백서를 발간하여 호주 정부의 원조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립적 평가 결과보고서인 ‘원조효과성 독립평가 (Independent Review of Aid Effectiveness)’를 바탕으로 2011년 7월 호주의 새로운 국가 원조정책

10) 영국은 30개의 PSA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PSA 29는 VIM을 보장하고 MDGs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제공한다 (DFID, 2009a).

을 제시하는 ‘호주의 효과적 원조 프로그램 (An Effective Aid Program for Australia: Making A Real Difference – Delivering Real Results)’을 공개하였고, AusAID는 이를 바탕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a & 2011b).

■ 원조정책과 MDGs

2011년 발표된 ‘호주의 효과적 원조 프로그램’에 의하면 호주는 2016-17년까지 GNI 대비 0.5%를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 예산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호주정부는 MDGs를 중심으로 한 5가지 전략적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10가지 세부 개발목표를 AusAID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a). 호주 정부는 2011년 이전 원조백서에서도 역시 MDGs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리선언의 이행도 강조하고 있다 (AusAID, 2006).

호주 정부의 MDGs를 중심으로 한 5대 원조정책 핵심목표는 다음과 같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a).

- 삶의 보호 (saving lives) : 보건, 안전한 식수, 위생환경
-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promoting opportunities for all) : 교육의 기회 및 여성지위향상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 식량안보, 고용, 기후변화 및 환경
- 효과적 거버넌스 (effective governance) : 안보, 정의, 인권
-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humanitarian and disaster response)

■ MDGs 달성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

2011년 원조정책의 발표 이후, 호주 정부는 호주의 MDGs 달성 기여를 위한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포괄적 원조정책 프레임워크 (Comprehensive Aid Policy Framework, 이후 CAPF)’를 개발하였다. CAPF는 호주 정부의 원조 중기 예산전략과 결과 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를 제공한다. CAPF에서는 AusAID 뿐 아니라 호주의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정부부처의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원조노력을 위하여, 2012-13년 원조 예산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CAPF는 또한 2015-16년까지 예산집행 예측을 제시하며, 지역별 예산구성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CAPF에 제시된 중기 예산 전략과 결과 프레임워크는 모두 MDGs를 달성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sAID 인터뷰, 2012). 그리고 CAPF는 2011년 호주 정부의 원조정책(호주의 효과적 원조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21개 중점지원국을

정리하였으며, 호주의 VfM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과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usAID, 2012a).

■ 원조기관 MDGs 기여도 평가

호주 정부는 CAPF에서 제시되고 있는 4년간 중기 원조 예산 전략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 결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호주 정부는 차후 독립의 부평가와 연간보고서의 원조투명성, 책무성, 예측성, 이행 평가에서 이 결과 프레임워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PF에 제시되어 있는 MDGs를 중심으로 한 호주 정부의 3단계 결과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으며, 표 2에서 더 자세히 정리하였다.

- 1단계(Tier 1) :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개도국의 MDGs 지표에 의거한 개발성과 향상 정도(progress) 평가
- 2단계(Tier 2) : MDGs 달성에 대한 호주 개발원조의 기여도 평가(호주 정부의 5대 전략적 개발목표 중심)
- 3단계(Tier 3) : 운영(사업수행)효과성과 조직효과성(원조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

[표 2] 호주정부의 3단계 원조결과 프레임워크

1단계 : 중점국 MDGs 달성정도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2단계 : 호주정부의 5대 전략목표	
삶의 보호	• 1백만명 이상의 아동의 예방주사 접종, 아동사망과 발병 감소 • 숙련된 보건의료인에 의한 1백만명 이상 추가 출산 • 850만명 이상의 인구의 안전한 식수이용 증가, 그리고 식수 및 위생관리위원회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권 보장 • 5백만명 이상 추가 인구의 기초 위생 이용 가능, 그리고 5백만명의 위생/청결 생활지식 향상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 4백만명 이상의 소년 소녀의 취학률과 24,000개 교실 증축 또는 개선, 그리고 1백2십만명의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영양(nutritional) 지원 • 19만명 교사와 30만명의 학교관리들의 교육, 그리고 2천만명 소년 소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기여하는 교과서 1백만권 지급 • 10만명 이상에게 인공삽입물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50만명의 소년 소녀들이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학교에 취학 • 4만명의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상담과 같은 서비스 제공 • 적어도 1만7천명(적어도 50%는 여성)에게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 후 그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고국귀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9,600km의 도로 건설, 복원 또는 유지로 인한 서비스와 시장 이용 향상 • 75만명의 농업인들(적어도 40%는 여성)이 5억달러 이상 가치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 이용 가능 • 230만명 빈곤층(적어도 50%는 여성)의 작은 비즈니스가 가능한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 이용 향상, 그리고 시장개발프로그램을 통한 140만명 빈곤층의 수입증가 • 적어도 420만명의 여성, 남성, 아동 취약층에게 현금지원(cash transfer support) 또는 기초영양지원과 같은 사회보호지원 제공 • 20개국까지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를 위한 적응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1개국에서의 경제성장에 따른 기술 및 법제적 지원을 통한 탄소배출 최소화 지원
효과적 거버넌스	• 14,000명의 사법공무원 연수에 따른 지역사회 안전 향상 • 17,000명 개도국 공무원(적어도 25%는 여성) 연수와 680개 시민사회기관(CSOs) 규정업무 지원, 그리고 23개 개도국 공공재정관리 강화 지원으로 인한 개도국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기본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증가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 분쟁 및 위기상황에 처한 3천만명 취약층에 대한 생명보호 지원 제공 • 예측된 인도주의적 위기 지원 요청시 48시간 내 AusAID 재난대응 시작
3단계 : 효율적·효과적 원조제공	
명확한 전략 (A clear strategy)	• CAPF를 통해 개발된 4년간 전정부적 원조예산 전략 • 2012년 말까지 20개 중점국 전략 업데이트 • 주제별 정책문서(thematic policy notes) 발간 • 호주 다자원조평가 완료 및 연간 업데이트 • 2012년 6월까지 AusAID 사명 및 가치 성명서 발표 • 2015-16년까지 AusAID 부서별 팀장으로서 주요 분야 전문가 마련을 위한 각 분야별 업무흐름 정의 • 2015-16년까지 AusAID 내 간부급(leadership role)의 40% 여성 인력으로 대체
VfM과 통합	• 경쟁 입찰 공개 최소 76% 유지 • 자문가 보상 100% 모두 자문가 보상체계(Adviser Remuneration Framework) 한계 내에서 유지 • 2015-16년까지 이니셔티브의 수 25% 이상 감소 • 2014년 말까지 개도국 시스템 이용 원조제공 비율 30%까지 증가 • 연간 사무소/부서간 직원이동 7.5%로 감소

위험관리 및 성과감독	• 2012년 6월까지 AusAID 청렴도 향상 정책(Fraud Control Plan)의 호주정부 청렴도 가이드라인 준수 • 직원 또는 개도국 원조 담당자의 부정부패 의심 사례의 100% 모두 사례발견 후 5일 이내에 AusAID 감사실장(Chief Auditor)에게 보고 • 2012년 중반까지 독립평가위원회(Independent Evaluation Committee) 설립 • 평가가능한 이니셔티브의 95% 이상 이행 메커니즘 성과품질관리에 의한 연간 보고 • 효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니셔티브의 75% 이상 폐지 또는 두 번의 평가주기 내 향상
투명성과 결과	• 2012-13년 예산의 고위급 결정 및 대중공개, 그리고 해마다 원조효과성 연간보고서의 일부로 평가 • 투명성헌장(Transparency Charter) 발간 • 연간 평가계획에 명시된 모든 독립적 평가 대중 공개 • 교육분야 모든 학년의 취학률, 전환율, 졸업률의 성별구분 데이터 2014년까지 구분
호주 커뮤니티참여	• 2015-16년까지 연간 신규봉사자 1천명 파견 • 2015-16년까지 호주 국제개발 공인 NGOs 기관 중 적어도 50개 기관 ANCP 참여 • 해외파견이 가능하도록 심사를 거쳐 훈련을 받은 Australian Civilian Corps 단원 500명 이상 선정 • 2015-16년까지 글로벌교육프로그램(Global Education Program) 교육과정 이수 교사 10만명 육성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AusAID, 2012a: 22-23

호주 정부는 위의 3단계 결과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원조 이행의 성과를 평가한다 (AusAID, 2012b).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프레임워크는 특히 호주 정부의 원조가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호주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그리고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 및 효과적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원조 활동 및 MDGs 달성 기여에 대해 AusAID 내부 질적평가(AusAID's Internal Quality Reporting System), 개발효과성 연간보고서(Annual Review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호주국가감사(Australian National Audit),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 그리고 외부독립평가를 통해 다면적 평가를 하고 있다 (AusAID, 2011a). 개발효과성 연간보고서에서는 호주 원조의 분야별 이행성과와 중점개도국의 MDGs 8개 목표별 달성현황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AusAID, 2010a). 이 모든 평가는 AusAID의 연간보고서(Annual Report)에 반영되고 있다 (AusAID, 2011a).

AusAID는 특히 연간보고서를 통해 MDGs 8개 목표별 호주 원조의 기여정도를 개도국 및 사업의 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연간보고서에서는 또한 개도국별 평가를 별도로 제시하여 각 개도국별 MDGs 달성정도와 함께 호주 원조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도국별 호주 원조의 MDGs 달성 기여 정도 평가방법은 정확한

정량적 평가라기보다,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MDGs 목표와 관련된 분야의 향상정도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10-11년간 라오스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AusAID, 2011a: 87).

- 라오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초등학교 취학률 향상 지속 : 2005-06년에서 2009-10년 사이 남학생 취학률 16.6%, 여학생 취학률 18.8% 증가
- 50개 학교에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제공 : 약 7천명의 아동과 235명의 교사에게 혜택
- 라오스 정부의 국가투자관리 시스템의 간소화 법 정착 지원 : 국내 및 국제 기업의 라오스에서의 사업 용이성 증가
- 라오스 북쪽지방의 도로시설 프로젝트 56% 완성 : 19,000 가구의 도로접근 향상 및 고용기회 창출, 그리고 지역별 연결 수송 기반시설 강화
- 110 헥타르에 달하는 폭탄 및 기타 폭발물 제거 NGOs 지원 : 7천명 정도에게 안전하고 이용가능한 환경 제공

참고로, 2010-11년 AusAID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AusAID의 라오스 국가 프로그램 원조는 총 3,68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에 비해 라오스는 MDGs Goal 4 아동 사망률 감소 목표 하나만을 달성하였다. 호주정부의 라오스 지원을 위한 2010-11년간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AusAID, 2011a: 86-87).

- 기초교육의 기회 및 질 향상, 그리고 교육분야 관리 강화
- 무역 및 투자 개선을 통한 광범위 기반 성장 지원
- 지방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와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통한 지방지역의 빈곤 감소

그 밖에 호주는 MDGs 달성을 위한 호주 정부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인 ‘MDGs 달성하기 : 호주의 2000-2010년간의 지원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ustralia's Support 2000-2010)’를 별도로 발간하였다 (Australian Government, 2010). 그리고 AusAID와 세계은행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원조 활동의 MDGs 기여정도를 평가한 보고서인 ‘호주와 세계은행 : 삶의 보호와 기회 창출 (Australia and the World Bank Group: Saving Lives, Creating Opportunity)’을 발간하여 MDGs 목표 관련 분야별 성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AusAID, 2011b).

3.3. 한국

한국의 원조정책은 유상의 경우 기획재정부, 무상의 경우 외교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즉, 한국의 원조정책은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립 이후, ODA 중기전략 및 추진계획(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연간시행계획)에 제시되고, 무상원조 이행기관인 KOICA와 유상원조 이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된다. 특히 2010년 선진화 방안 수립 이후 한국의 원조정책은 연간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원조 정책 문서는 다음과 같다.

- 2006년 : 2006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 2007년 : 2007년도 ODA 추진계획, 공적개발원조 중기전략(2008-2010)
- 2008년 : 2008년도 ODA 추진계획, 중기 ODA 확대계획
- 2009년 : 2009년도 ODA 사업계획
- 2010년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 2011년 :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 2012년 :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원조정책과 MDGs

한국 정부는 2007년 ODA 중기전략에서 국민지지 확보 및 참여확대를 위해 원조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 원조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MDGs 달성 노력에 있어서 2007년 중기전략을 통해 1) 지역별 추진전략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MDGs 달성위주의 인도적 지원확대, 2) 분야별 추진전략을 통해 교육·훈련분야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MDGs 달성에 기여, 3) 다자원조 추진전략을 통해 다자개발기구와의 협력강화에 의한 개도국의 MDGs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그리고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된 무상원조 중기추진전략(2011-15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2015년 M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 문서에서는 1) MDGs 달성을 위한 노력 확대, 2) MDGs 달성성고가 특히 저조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3) 사업지역, 내용 선정에 MDGs 달성 현황을 주요 고려요인의 하나로 반영하여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b).

또한 한국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한국 ODA의 발전 방안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MDGs 달성과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a). 따라서 그 이후 한국 정부의 원조 사업목표 설정 및 운용방향 수립에 있어서 정부는 MDGs 달성기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MDGs 달성이 저조한 아프리카의 최빈국 지원강화를 위해 사업선정시 MDGs 달성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교육 및 보건 분야 등 MDGs 달성과 관련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a & 2011b).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및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찰은 미약하였다.

그 외 외교부는 2008년 MDGs 이행 추진현황 분석과 함께 한국 ODA의 기여 노력을 1) 개발 재원 확보, 2) 지역별·분야별·소득그룹별 기여 확대, 3) 원조효과성 제고, 4)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4가지로 요약 정리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2008).

■ 무상원조 중심의 MDGs 달성을 위한 이행 메커니즘

KOICA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선진화 방안 수립에 발맞추어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를 수립하였다. KOICA 선진화 계획은 MDGs를 비롯하여 파리선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0c). 그러나 선진화 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MDGs 및 파리선언 달성 노력은 대략적 언급의 수준이며, 특히 영국과 비교했을 때 원조효과성 제고를 통한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별, 조직별, 또는 사무소별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MDGs 달성을 위한 기여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KOICA는 선진화 계획 이전부터 MDG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6년부터 ‘MDGs 달성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를 연간사업계획에 꾸준히 반영해오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05, 2006a, 2006b, 2008, 2010a, 2011a). 물론, 2001년 MDGs 수립 직후 KOICA 연간계획에 MDGs 달성 기여가 목표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이전과 비교하여 국별 분석에 있어서 MDGs 달성여부 분석과 분야별 달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0a & 2011a). 그 한 예로 2011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의 ‘국가별 협력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부분의 동티모르 보건의료 부분을 살펴보면, KOICA는 사업계획의 이 부분에서 MDGs 보고서에 따르면 동티모르의 수자원에 대한 지속가능 목표 달성이 매우 낮으므로, KOICA 동티모르 사업에 있어서 깨끗한 식수보급 사업

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1a). 그러나 국가별 MDGs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과 KOICA 사업의 기여방안 제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KOICA는 2011년 초에 수립된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후 CPS)에서도 해당 대상국에 대한 전략수립 단계에서 MDGs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구체적 시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립된 국가별 CPS의 국가분석을 보면 (예 : 볼리비아 CPS), 해당 국가의 MDGs 달성정도 분석과 이행이 어려운 분야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2).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사업발굴 및 이행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KOICA 인터뷰, 2012). 이는 CPS가 영국의 CAP과 마찬가지로 MDGs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제시하기 보다는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KOICA는 현재 보건분야 중기전략과 교육분야의 중기전략을 수립한 상태이다. KOICA의 보건 및 교육 전략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KOICA 선진화 계획에 맞추어 2011-2015년간의 전략으로 개발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1b & 2011c). 하지만 보건전략과 교육전략 모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반면 KOICA의 보건전략과 교육전략은 CPS와의 연계를 위한 분석을 포함하고, 특히 MDGs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KOICA는 분야별 전략 및 사업선정시 MDGs에 대한 기본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개도국별 MDGs 달성 현황의 체계적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한 원조기관 MDGs 기여도 평가

영국 및 호주와 비교하여 한국은 아직 원조기관의 M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 평가 또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교부는 2009년 MDGs 달성 기여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전략에 따른 이행여부 및 기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KOICA는 매년 연보를 발행하여 ‘MDGs 달성저조지역 중점지원’을 사업목표 및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성과평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예 : 한국국제협력단, 2010b). 즉, 현 KOICA의 연보는 실적위주로 구성되며, 개발성과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 외 CPS 및 분야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MDGs를 중심으로 전략적 방향설정은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전략 이행 평가에 있어서 MDGs 중심의 기여도 평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공여국은 MDGs의 달성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 공여국은 MDGs 달성에 대한 기여를 위해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글로벌 과제 및 목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4.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본 연구는 제2장에서 향후 Post-2015 아젠다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MDGs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MDGs의 한계 중 현재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아젠다 개발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공여국 중심을 탈피하여 개도국 중심의 개발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예를 들어, 아시아 개도국들은 MDGs 달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도국 내 불평등(inequality) 문제를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예 : KDI-UNDP, 2012). 또한 앞에서도 언급된 ‘단일한 기준이 모든 국가에 적합하다(one size fits all)’라는 오류가 Post-2015 체제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여국과 개도국 모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0년 이후 변화한 국제상황을 반영한 글로벌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UNDP,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과 향후 Post-2015 프레임워크 수립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1.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를 위한 주요 논의

국제사회의 현재까지의 Post-2015 프레임워크에 대한 주요 논의 동향은 크게 1) ‘2015년으로 합의된 MDGs의 이행목표 연장’, 2) ‘기존의 MDGs 목표를 기준으로 연구 및 협의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목표 설정’, 3)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 제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옵션이 명확히 분리되어 한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옵션의 일부를 모아서 혼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 혼합이론 (Hybrids Theory) (Evans and Steven, 2012; Hulme and Wilkinson, 2012). 또는 예상치 못하게 국제사회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한 상태로 2015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충돌이론 (Car Crash Theory) (Evans and Steven, 2012).

참고로 혼합이론(Hybrid Theory)은 ‘변경된 MDGs (revised MDGs)’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¹¹⁾와 같은 여타 목표들이 결합된 형태로써 Post-2015 아젠다가 개발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Post-2015 아젠다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MDGs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의 니즈(needs)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국제적으로 제안된 목표들이 주요 요소

11)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본 절의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개도국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개도국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다. 이후 단계에서는 논의된 혼합 목표들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설정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화적 접근법(evolutionary approach)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며, 2015년까지 적은 수의 제한된 글로벌 목표가 설정된 후, 점차적으로 컨센서스 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사실상 과거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규범적 프레임워크(new normative framework)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 (Evans and Steven, 2012).

충돌이론(Car Crash Theory)은 최근 국제시스템의 많은 경우에서 ‘고착된 진전(stalled processes)’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Post-2015 아젠다 형성 과정에서 합의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MDGs가 개발된 10년 전 국제사회의 상황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으며 글로벌 번영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돌이론에 의하면,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합의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은 10년 전과 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15년까지 선거를 앞둔 국가와 정치적 구도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가 적지 않으므로, 국제회의의 의견 일치를 위한 국가별 국내 컨센서스 도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Post-2015 체제형성 과정이 충돌이론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질 경우, 2015년 이후 최대 5년 까지 현 MDGs를 그대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목표 개발 과정이 지속될 수도 있다 (Evans and Steven, 2012).

(1) 2015년으로 합의된 MDGs의 이행목표 연장 (MDGs 2020/2025)

Post-2015 체제 논의의 큰 방향 중 하나는 2015년을 목표로 한 MDGs의 시간적 이행시점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특히 개도국의 입장에서 2015년까지라는 MDGs 이행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에게 2015년 이후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하여 새롭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이유이다. 둘째는, 이는 비단 개도국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며, 공여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투자하고 이행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개도국과 공여국 모두 또 다른 ‘실험적’ 개발 아젠다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UNECA, 2011).

따라서 이 옵션의 기본방향은 MDGs와 같은 8가지 목표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지표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만 주는 한도에서 MDGs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시간적 목

표를 2020년 또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즉, 이 옵션은 기존 MDGs의 지표는 유지하고, 최소의 변화 또는 새로운 지표 제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개도국 중심의 프레임워크 개발 고려가 미흡하다는 MDGs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더 나은 성과 지표 향상에 대한 고려와 기후변화와 같은 당면과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UNECA, 2011).

(2) 기존 MDGs의 재구성을 통한 Post-2015 프레임워크 개발 (MDG-Plus/MDGs 2.0)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를 위한 두 번째 옵션은 기존의 MDGs를 재구성하여 Post-2015 글로벌 목표로 개발하자는 의견이다. 이 옵션은 특히 MDGs 개발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이 안은 글로벌 차원의 MDGs 지표 중 아동교육, 보건, 영양 등과 같은 일부 지표는 유지하고, 평화 및 안보, HIV/AIDS 고아 지원, 인권 및 굳거버넌스(good governance), 취약층 보호,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등과 같은 국가차원의 추가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Karver et al., 2012).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방향에 대해서 기존 MDGs 이외의 목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현재까지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이루어 낸 성과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UNECA, 2011). 또한 이 옵션은 MDGs 프레임워크의 간결성을 결여시키고, 새로운 목표에 대한 정치적 협상 및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3)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 수립 (New Global Goals)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옵션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1)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중심의 프레임워크 개발, 2) 벨라지오 12 미래목표 (Bellagio 12 Future Goals) 또는 Post-2015 목표 (Post-2015 Goals), 3) MDGs Goal 8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One World), 4)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 SDGs), 그리고 5) G20 및 Post-Busan 논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체제 구성이다.

▣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중심의 프레임워크 개발

우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 프레임워크는 2015년 이후의 글로벌 목표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2000년대 이전 원조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을 평가한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ollard and Fischler, 2012).

■ 벨라지오 12 미래목표 (Bellagio 12 Future Goals) 또는 Post-2015 목표(Post-2015 Goals)

둘째로, 국제적십자연맹과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이후 CIGI)는 2011년 ‘Post-2015 개발 패러다임을 위한 국제회의 (Toward a Post-2015 Development Paradigm)’에서 ‘2011 벨라지오 보고서 (Bellagio Report)’를 제시하였다. 2011 벨라지오 보고서는 Post-2015 체제를 위해 ‘12가지 미래 목표 (12 Future Goals)’를 제안하고 있다 (표 3 참고).

[표 3] 벨라지오 12 미래목표

개인별 잠재성 성취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건(endowments)	
Goal 1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당한 생계수준과 수입 수준
Goal 2	활동적 생활을 위해 충분한 식량과 식수
Goal 3	사회에서의 생산적 참여를 위한 적당한 교육과 기술
Goal 4	가장 가능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행복(well-being)을 위한 좋은 보건상태
공동의 인적자본 촉진과 보호	
Goal 5	폭력없는 자유 보장을 위한 안보
Goal 6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양성평등
Goal 7	자연재해 및 기술적 위험에 의한 재난충격 감소를 위한 회복력 있는(resilient) 커뮤니티와 국가
Goal 8	필수정보, 서비스, 기회에 대한 접근성
글로벌 공공재의 효과적 공급(provision)	
Goal 9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권한
Goal 10	모두 함께 번창할 수 있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생물권의 지속가능한 관리
Goal 11	모든 국가의 공평한 공유 혜택을 위한 세계 경제관리 원칙(rules) 설립
Goal 12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제제도와 파트너십을 위한 글로벌 굳거버넌스(good governance)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Carin and Kapila, 2011: 10

그러나 이 목표는 글로벌 당면과제를 모두 포함하려 함으로써 MDGs가 도전적(ambitious) 과제로 비판받았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너무 많은 비현실적 목표 제시는 결국 이후 개도국의 부담 증가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GI는 2012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2011 벨라지오 보고서의 12가지 글로벌 목표를 일부 수정하여 ‘Post-2015 목표 (Post-2015 Goals)’로 명시하였다. 2012년 파리회의에서 논의된 Post-2015 목표는 1) 빈곤퇴치, 2) 식

량과 식수, 3) 보편적 문해력 (universal literacy), 4) 더 건강한 삶, 5) 폭력과 취약성 (vulnerability), 6) 양성평등, 7) 재난감소, 8) 보편적 접속가능성 (universal connectivity), 9) 정치적 권리 및 시민권, 10) 환경적 지속가능성, 11) 공정한 경제법 (equitable economic rules), 12)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벨라지오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MDGs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MDGs Goal 8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One World)

세 번째 논의는 MDGs Goal 8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안은 빈곤과 취약성에 대한 더 넓은 원인을 파악하여 2015년 이후의 글로벌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기후변화, 글로벌 공공재, 사회보장 등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프레임워크로의 변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안은 MDGs Goal 8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개념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Manning, 2009; Sumner and Tiwari, 2010). 그러나 이 논의는 앞의 논의들과 비교하여 국제사회의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 SDGs)

다음으로, SDGs를 중심으로 한 개발 프레임워크 형성에 대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는 최근 환경과 빈곤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그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선언문에서 앞으로 그의 임기 중 주요 아젠다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¹²⁾라고 소개하면서, Rio+20 회의의 성과가 향후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그의 두 번째 임기기간 중 주요 우선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N, 2012c).

SDGs는 Rio+20 회의를 앞둔 2011년 9월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Rio+20의 주요 성과로써 MDGs와 동등한(equivalent to the MDGs) 글로벌 목표 수립을 위해 ‘Rio+20 결과문서 초초안 (Zero Draft of the Rio+20 Outcome Document)’을 제안하였다. SDGs는 1992년 ‘리오지구정상회의 (Rio Earth Summit)’에서 개발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방안인 ‘아젠다 21 (Agenda 21)’에 근거한 제안서로써, 빈곤, 소비양식(pattern)의 변화, 식량, 에너지, 식수, 생물다양성 그리고 그 외 환경문제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UNECLAC, 2011; Evans and Steven, 2012).

12) 반기문 사무총장의 두 번째 임기 아젠다인 ‘The Future We Want’는 Rio+20의 결과문서(정치적 선언문)의 제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UN, 2012f).

콜롬비아 정부는 MDGs가 글로벌 목표라기 보다 개도국에만 해당하는 목표로 이용되었다면, 국제사회는 SDGs를 도입함으로써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universal) 목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UNECLAC, 2011). 그러나 2011년 콜롬비아 정부가 제안한 SDGs는 아이디어 형성 단계라 할 수 있으며 Rio+20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BMZ, 2012).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Rio+20을 통해 SDGs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기대하였으나 (Beyond2015, 2012), Rio+20 참가국들은 이를 이후 UN 총회에서 시작하기로 하였다 (UN, 2012f).

본 연구는 콜롬비아 정부가 제안했던 SDGs를 표4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DGs는 1992년의 아젠다 21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2012년 Rio+20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같은 기후변화의 최근 이슈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Evans and Steven, 2012).

[표 4] 2011년 콜롬비아 정부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안)

- 상품시장과 정책
- 빈곤퇴치
- 소비양식(pattern)의 변화
- 인구역학(demographic dynamics)과 지속가능성
- 인간보건 촉진과 보호
- 지속가능한 거주(human settlement) 개발 촉진
-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과 개발 통합
-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대기권 보호]
- 기후변화 적응
- 토지자원 기획 관리의 통합적 접근
- 산림파괴 퇴치
- 사막화 및 가뭄 방지 [취약한 생태계 관리]
- 취약한 생태계 관리 :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촉진 [농촌개발]
- 생물다양성 보존
- 생물공학의 환경적으로 적절한(sound) 관리
- 대양 및 모든 종류의 바다 보호,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 보호 및 합리적 이용과 개발
- 깨끗한 수자원 공급 및 질적보호 : 수자원의 개발, 관리, 이용의 통합적 접근법 적용
- 독성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적절한(sound) 관리*
-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적절한(sound) 관리*
- 고형폐기물과 오물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적절한(sound) 관리*
- 방사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적절한(sound) 관리와 안전*

* 표시된 4가지 목표는 하나의 목표로 통합가능

그러나 일부에서는 SDGs가 MDGs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Post-2015 아젠다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Pollard and Fischler, 2012). UNDP는 SDGs가 Post-2015 프레임워크 형성과정에 있어서 여러 아젠다들과 경쟁되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발 아젠다들과 함께 글로벌 개발목표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Rio+20에서 합의된 SDGs와 관련된 최종 결과물은 Post-2015 아젠다 개발과정에 통합되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NDP, 2011). 나아가 국제사회는 SDGs 논의를 통해 MDGs에서 고려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을 Post-2015 프레임워크 개발과정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eyond2015, 2012). 이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20일-22일 브라질에서 열린 Rio+20에서 국제사회는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함으로써, SDGs 설정에 합의하고 향후 Post-2015 개발 아젠다와의 양립가능성을 제시하였다 (UN, 2012f).

하지만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SDGs에 담긴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SDGs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이들은 SDGs가 MDGs 아젠다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중소득국과 저소득국가들은 빈곤퇴치 중심의 국제개발 아젠다가 환경 이슈를 빌미로 한 보호 무역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원조 조건제시 정책(conditionality)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Melamed, 2012a).

동시에 SDGs는 글로벌 목표가 되기 위한 1) 목표들이 빈곤층을 위해 정말 유의미한가, 2) 국제목표가 현실세계에서 실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3)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되고 합의된 목표인가라는 3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안되었다고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Pollard and Fischler, 2011). 나아가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Post-2015 개발의제’ 회의 발표내용에서는 SDGs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면, SDGs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하는 Post-2015 아젠다 옵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eyond2015, 2015; KDI-UNDP, 2012).

▣ G20 및 Post-Busan 논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체제 구성

마지막으로 그 밖에 Post-2015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수립과 관련하여 아젠다 형성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논의는 크게 1) ‘G20와 녹색성장 (green growth)’과 2) ‘부산파트너십과 개발협력의 다양한 재원 및 주체 포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Post-2015 프레임워크를 위한 아젠다는 2000년 이후로 변화한 국제관계와 금융공황, 다양화 된 개발재원 (기후재원, 혁신과세, 민간재원 등), 그리고 천연자원 및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의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는 Rio+20에서 논의된 SDGs 뿐 아니라 G20에서 논의된 경제문제와 부산총회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개발재원 및 새로운 국제협력 주제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G20의 논의내용이 Post-2015 프레임워크 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될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고, 다만 G20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내용이 Post-2015 프레임워크 구성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G8 중심에서 BRICS와 같은 신흥경제국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Sumner and Tiwari, 2010; Melamed, 2012a).

다른 한편으로,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은 G20 아젠다와 비교했을 때, Post-2015 아젠다에 더 직접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초 UN 사무총장에 의해 구성된 Post-2015 UN 개발과제 형성 작업반(Task Team)이 분석중인 6대 과제 중 다섯 번째 과제가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Post-2015 개발 아젠다 수립에 고려하여 미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방안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다 (UN, 2012g). 참고로 UN Post-2015 개발과제 작업반에게 주어진 6대 과제는 1) MDGs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판적 평가, 2) 새로운 개발과제 파악, 3) 명확한 주체 도표화(mapping of actors)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분석 및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대한 제안서 및 과정 평가, 4) G20 및 Rio+20와 같은 글로벌 논의 과정과 지역별 개발목표를 연계하는 Post-2015 개발 아젠다 방법 평가, 5)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 방법 평가, 그리고 6) Post-2015 글로벌 개발 아젠다를 위한 가능한 구성방식 평가이다 (UN, 2012g).

그 외에도 분쟁 및 취약국(fragile states)을 위한 차별화 된 접근법,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책임성 강화, 그리고 신흥경제국 및 시민사회, 민간기업과 같은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들을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개발아젠다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논의점이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다 (BMZ, 2012; Evans and Steven, 2012).

위의 5가지 논의들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Post-2015 개발 아젠다로 설정될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경제구조 전환 중심의 프레임워크로 Post-2015 체제가 개발되는 경우 과거로의 퇴보라는 우려가 있으며, 사실상 UN은 향후 Post-2015 프레임워크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1 참고). 또한 MDGs Goal 8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워크는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을 너무 강조하여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벨라지오 목표의 경우, MDGs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Post-2015 글로벌 목표로 설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중 MDGs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발전시키고 G20 및 Post-Busan의 논의 내용과 연계하여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2. 향후 Post-2015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Post-2015 프레임워크를 위한 위의 세 옵션 중 MDGs를 2020년 또는 202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합의는 가장 쉬울 수 있겠으나 정치적으로 큰 호응은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기존 MDGs의 재구성을 통한 Post-2015 프레임워크 개발’ 또는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목표 수립’ 옵션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Sumner and Tiwari, 2010).

향후 Post-2015 체제수립은 표 5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UN 사무총장은 2011년 말 UNDESA와 UNDG의 MDGs 업무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Post-2015 UN 작업반을 구성하여 MDGs 평가 및 향후 논의 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서를 2012년 5월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UN, 2012g).

[표 5] 2011년 이후 UN의 Post-2015 체제 수립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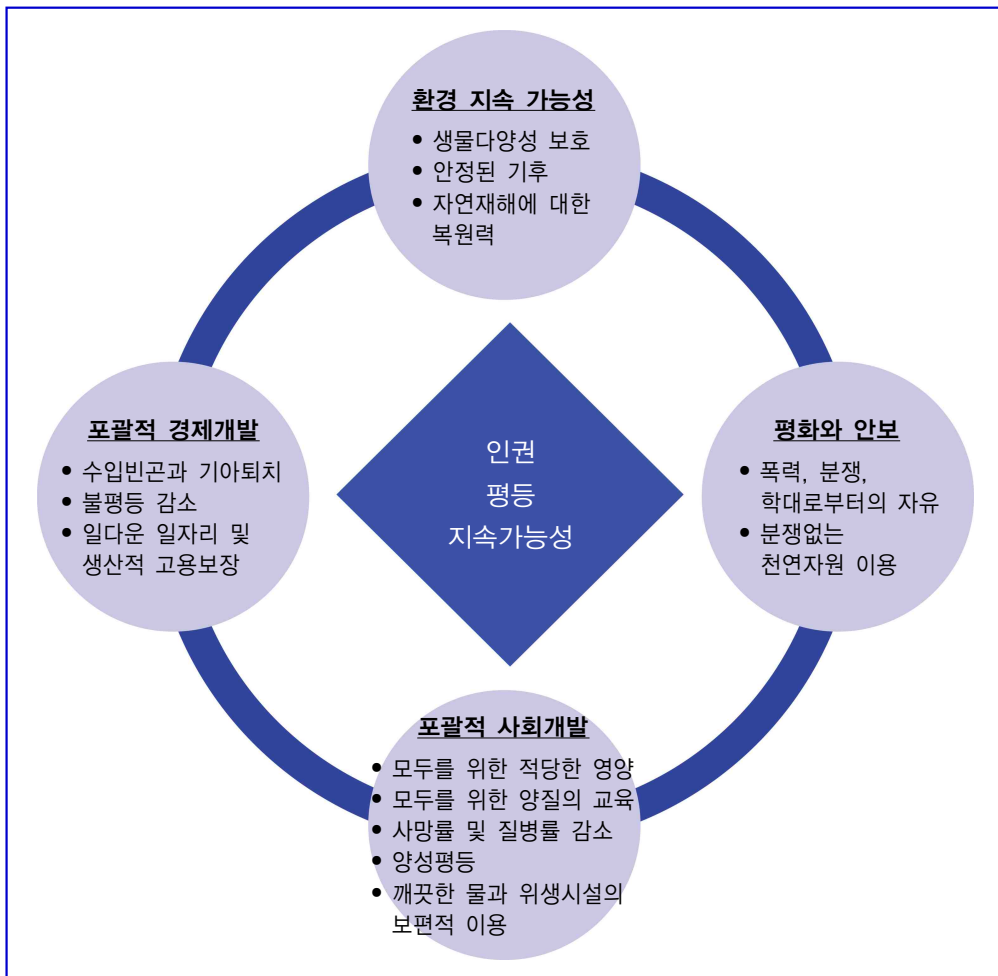
2012년	1월	■ UN 작업반 보고서 제안서 제출
	2월	■ UN 작업반 보고서 1차 초안 제출
	3월	■ UN 작업반 보고서 2차 수정본 제출
	6월	■ 국별협의 시작 (50개국) ■ UN 작업반 보고서 최종안 UN 사무총장에게 제출 ■ UN 사무총장 Post-2015 개발 아젠다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 이후 HLP) 구성원 임명 (정부간 협의)
	9월	■ 국별협의 초기 피드백 수렴
2013년	1/4분기	■ 국별협의 종료 및 문서화 (주요 논의점 공유 예정) ■ 국별협의 최종결과 HLP에 제출 ■ HLP Post-2015 개발 아젠다 보고서 UN 사무총장에게 제출
	6월	■ 국별협의 결과 보고 행사
	6월-8월	■ UN 회원국 사전협상
	9월	■ UN 총회 MDGs 특별행사 (Post-2015 프로세스에 대한 결의안 합의 예정)
2014년	9월	■ Post-2015 프레임워크 지표 제안
2015년	9월	■ Post-2015 체제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합의 (UN 총회)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Manning, 2009; UN, 2012a, 2012b, 2012d, 2012e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에 출간되어, 7월에 공개되었다. UN 작업반은 이 보고서를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 실현하기(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로 명시하였으며, Rio+20의 SDGs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UN 작업반은 Post-2015 개발 아젠다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깊이있는 국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UN 작업반은 3대 기본원칙과 4대 핵심방향을 설정하여 그림 1과 같은 Post-2015 UN 개발 아젠다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UN, 2012b).

[그림 1] Post-2015 UN 개발 아젠다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출처 : 저자 재구성 / 참고문헌 : UN, 2012b: 24

UN 작업반 보고서는 Post-2015 글로벌 목표의 시간적 목표는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UN, 2012b),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시간적 프레임은 2015년 데이터를 기준점(baseline)으로 하여 2030년 또는 2040년까지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Karver et al., 2012).

또한, UN 작업반은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단계 아젠다 형성과정 (Two-Step Approach Road Map)’을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현재 시점에서 2013년 9월 특별행사까지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열린 협의과정 (open, inclusive and transparent consultation process)’을 갖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특별행사부터 2015년까지 ‘포괄적이며 열린 과정’을 유지하면서 ‘정부간 컨센서스 달성과정’을 갖는 것이다 (UN, 2012b). 이를 위해 UNDP와 UNDG는 1) 개도국 내 Post-2015 개발 아젠다 논의 확산을 위하여 2012년 6월부터 총 50개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별협의 (Country Consultations)’를 시작하였고, 2) ‘불평등, 인구, 보건, 교육, 성장과 고용, 분쟁 및 취약, 거버넌스, 환경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의 9대 주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주제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3)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 뿐 아닌 모든 이들이 Post-2015 아젠다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촉진하고 있다 (UN, 2012a & 2012b).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설립은 최상의 시나리오의 경우 위와 같은 개발과정을 거쳐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최종 합의가 될 수 있겠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마지막까지 국제적인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하여 2015년 이후까지 Post-2015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Car Crash Theory)가 나오고 있다 (Pollard and Fischler, 2012). 이러한 우려는 특히 Rio+20 회의에서 SDGs를 개발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는 ‘어떻게 가장 좋은 옵션을 조합하느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Sumner and Tiwari, 2010; Hulme and Wilkinson, 2012).

5.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한국의 기여방안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 Post-2015 체제 수립 과정 참여방안’과 ‘Post-2015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발전방안’의 두 방향의 기여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한국의 국제사회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참여방안

본 연구는 제2장에서 MDGs는 경제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을 강조하는 결과중심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MDGs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 미적용
- 사회개발의 지나친 강조
- 공여국과 개도국 간 일치, 공여국 간 조화 및 정책일관성 부족
- 불평등,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안보, 환경지속성 및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당면 과제 불포함
- 도전적(ambitious) 과제
- 개도국에게만 MDGs 이행 강요
-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법 부재 (예 : 취약국가)
- 일부 공여국 중심의 MDGs 개발 (개도국 상황 고려 미약)
- 정량화 된 평가 (질적 발전에 대한 고려 필요)
-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국가단위 목표로 이행

UN 작업반 역시 최근 발표된 분석보고서를 통해 MDGs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Post-2015 아젠다 형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그림 1 참고). 그러나 일본은 이미 2011년부터 MDGs가 공여국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고 개도국의 상황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개도국 중심의 글로벌 아젠다 형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유럽 역시 국제사회의 Post-2015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유럽개발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MDGs 한계 분석 및 2015년 이후 글로벌 아젠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Post-2015 글로벌 아젠다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MDGs 개발 배경을 분석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MDGs 목표수립 이전 다양한 보고서가 UN에 제출되어 MDGs 체제 설립과정에 활용되었다

는 것이다. 특히 OECD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의 IDGs는 MDGs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제사회의 Post-2015 체제 형성 과정을 보면, 2012년 7월에 공개된 UN 작업반 보고서를 토대로 콜롬비아 정부가 제안한 SDGs가 IDGs의 역할을 하여 2015년 이후 글로벌 목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Post-2015 체제 수립 과정에서 ‘국제적 차원’의 Post-2015 글로벌 목표 개발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는 총리실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민-관 포럼’과 ‘산하 연구진’을 형성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Post-2015 체제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좀 더 일찍 마련되어, 2012년 9월 UN 총회에서 한국이 Post-2015 의제 설정과정에 내용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Post-2015 체제 준비 민-관 포럼(안)

- [2012년 8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 및 ‘글로벌 목표’ 설정을 위한 (정부 기관, 학계,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 포럼 (가칭, Post-2015 체제 준비반)
- [2012년 8월] 국가자문단 내 연구팀 조직
- [2012년 9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 대한 정부의 참여 절차 논의 (부산총회 이전 절차 및 경험 활용)
- [2013년 2월까지] 공동연구 또는 국제포럼 등을 통한 ‘개도국 중심의 글로벌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개발 목표 수립 (연구과정에 피드백 반영) – Post-2015 프레임워크의 내용적 측면 (Track 1)
- [2013년 2월까지] 공동연구 또는 국제포럼 등을 통한 국제 개발 프레임워크 방안 논의 (연구과정에 피드백 반영) – Post-2015 프레임워크의 제도적 측면 (Track 2)
- [2013년 5월] 민-관 포럼 연구진의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국제기구, 공여국, 개도국, 신흥경제국, 국내외 시민사회, 국내외 민간부문 대표 초청)
- [2013년 6월] 국제회의 결과보고서 내용 최종 보고서에 반영
- [2013년 6월] 2013년 9월 총회를 위해 한국 민-관 포럼의 보고서를 UN에 제출하여 Post-2015 아젠다 형성과정에 반영

민-관 포럼 산하 연구진은 특히 향후 Post-2015 프레임워크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MDGs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글로벌 목표를 제시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4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이 제안하고자 하는 Post-2015 글로벌 목표는 SDGs 중 MDGs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과 G20 및 Post-Busan 체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Post-2015 프레임워크의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의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관 포럼 및 산하 연구팀의 활동과 연구 결과는 향후 Post-2015 체제 수립절차에서 UN HLP 활동과 정부간 협의 과정(표 5 참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KOICA는 이행기관 차원에서 본 연구와 연계하여 Post-2015 개발 글로벌 개발 목표 수립을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민-관 포럼의 운영을 지원하고 산하 연구팀에 내용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한국 정부는 이미 2011년 부산총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아젠다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되살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글로벌 체제 및 개발 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 정부 및 KOICA의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발전방안

Post-2015 체제 수립 기여방안의 일부로써, 한국 정부 및 KOICA는 향후 수립하게 될 2015년 이후의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해 현 MDGs 이행 기여과정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국제사회의 Post-2015 글로벌 목표 수립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이후 새로운 글로벌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원조규모의 증가 정도를 MDGs 달성 기여방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분석 자료들을 보면 주요 선진공여국의 MDGs 이행 노력 동향을 2000년 이후 원조규모의 향상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2008). 이는 이후 글로벌 목표 이행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공여국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는 의미로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원조규모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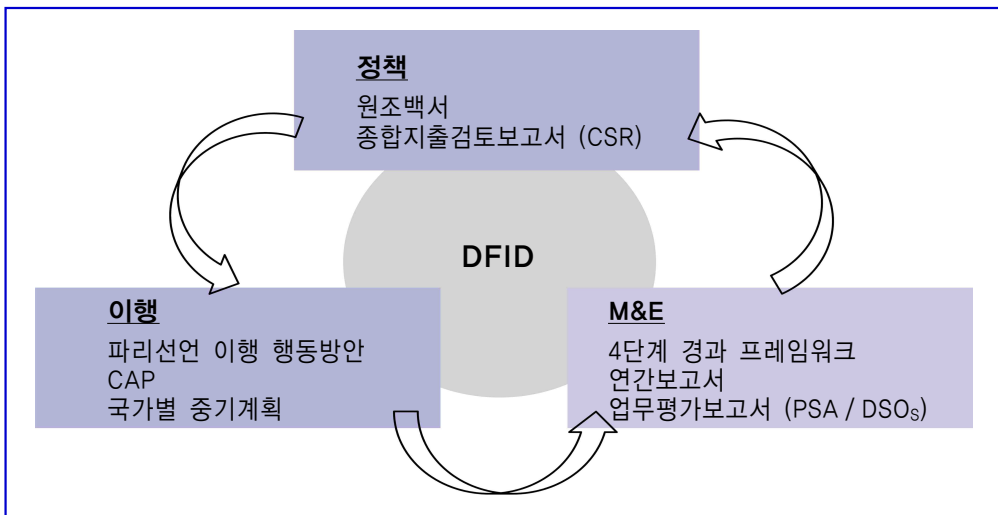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 정부 및 KOICA의 Post-2015 목표의 이행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실상 기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MDGs 이행방안은 대부분이 ‘체제적 다자원조전략 마련 및 아시아의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또는 ‘한국 원조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과 같은 광범위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권을 외, 2008; 정지선,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MDGs와 관련된 정부 및 이행기관의 ‘정책-이행-M&E’의 순환구조

13) KOICA의 후속 연구과제는 본 장의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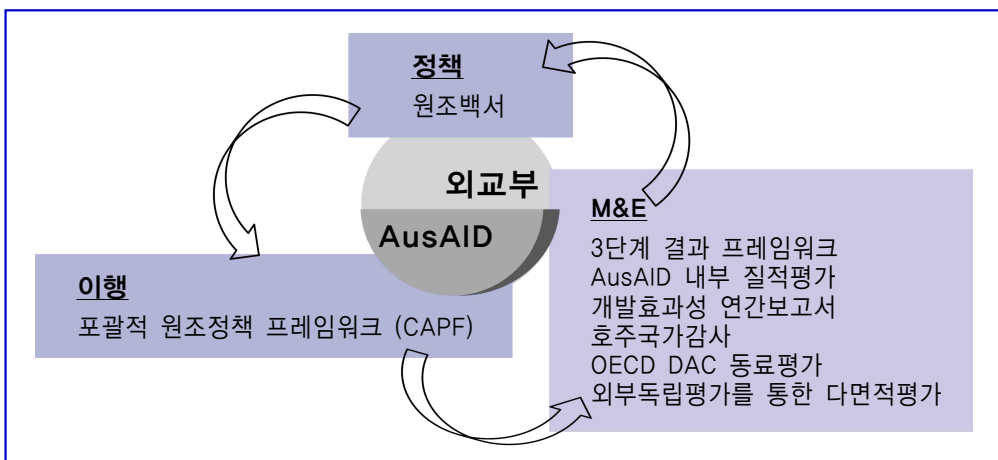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제3장서 분석된 영국, 호주, 한국의 MDGs 달성 기여 과정을 ‘정책-이행-M&E’의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도식화하여 정리해 보면 그림 2, 3, 4와 같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림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과 호주는 MDGs 달성 기여를 위한 원조 제공과정에서 백서를 시작으로 한 ‘정책-이행-M&E’의 순환구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외교부와 AusAID 간 전정부적 정책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영국의 MDGs 달성 기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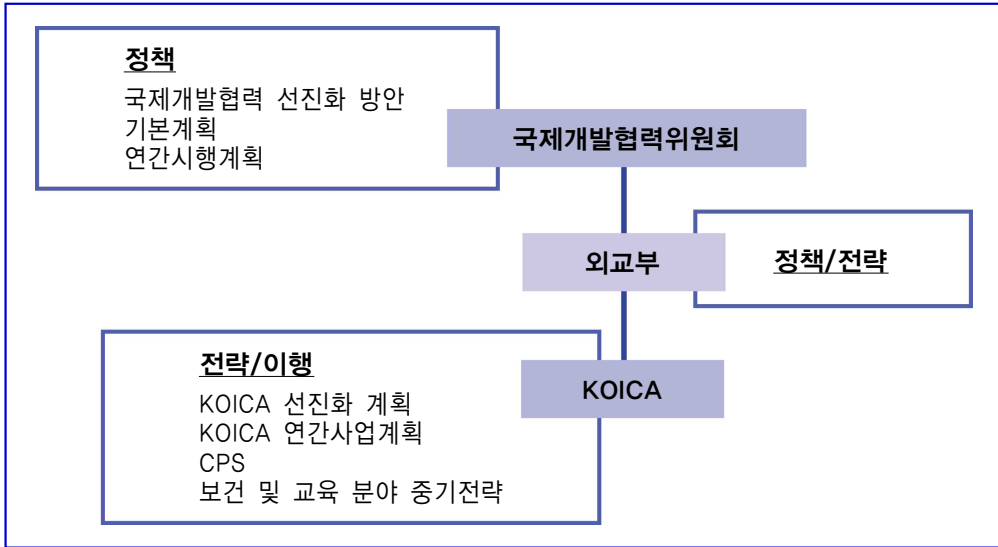
출처 : 저자작성

[그림 3] 호주의 MDGs 달성 기여 과정



출처 : 저자작성

[그림 4] 한국의 MDGs 달성 기여 과정



출처 : 저자작성

이에 반해,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외교부 및 이행기관인 KOICA 간 정책적 연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부는 MDGs와 관련한 정책 또는 전략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책기관과 이행기관과의 연계가 미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MDGs 관련 정부정책과 전략 문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외교부 및 KOICA내의 MDGs 관련 현재 담당자 뿐 아니라 과거 담당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정부의 MDGs 지원 과정에 대해 직접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현재 한국 ODA의 MDGs 달성 지원 과정은 전정부적, 기관 간, 기관 내,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정책-전략-이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M&E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및 전략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개발위원회, 외교부, KOICA 모두 대체적으로 MDGs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정책 및 전략의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한 체계가 미약하다. 그러나 사실 영국 및 호주도 아직 공여기관의 MDGs 달성 기여도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2015년이 3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MDGs 달성 기여도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국가들은 현재 2015년 이후 새로운 글로벌 목표 이행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의지 및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역시 정책이행의 M&E 구조 마련을 통해 이러한 공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MDGs 달성 기여과정에 있어서 ‘정책-이행-M&E’ 프레임워크를 위한 전체적인 ‘매핑(mapping)’이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정책-이행-M&E)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Post-2015 개발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정책과 이행전략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비단 MDGs 및 Post-2015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효과적 원조이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KOICA 내부적으로도 전략-사업-평가 순환구조 프레임워크의 개발도 필요하다. KOICA는 원조사업 이행에 있어서, ‘전략-사업-평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아 전략-사업-평가 사이에 공백(gap)이 있어 왔다. 따라서 향후 Post-2015 목표 달성 뿐 아니라 한국 OD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원조의 정책-이행-평가제도의 범정부적 프레임워크와 기관 내 프레임워크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원조정책과 외교부 및 KOICA 원조지원 전략의 ‘공식화’ 문제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교부는 MDGs 지원 정책 및 전략 자체가 부재하고, 사실상 그러한 정책 또는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책기관인 외교부와 이행기관인 KOICA와의 연계가 어려웠다는 제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원조백서 발간이라는 공식화 된 절차를 통해 범정부적 MDGs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식화 된 정책 및 전략에 따른 MDGs 달성 기여 노력의 이행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한국 ODA의 역사, 제도 그리고 역량은 영국 및 호주와 같은 선진공여국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선진공여국의 모범사례를 통해 앞으로 한국 ODA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개발협력 체계에서는 현재보다 나은 모습으로 글로벌 목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백서차원의 원조정책 제시를 시작으로 ‘정책-이행-M&E’ 프레임워크의 전정부적 매핑(mapping)을 수립하여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KOICA는 본 연구의 후속과제로 영국과 호주 사례를 포함한 주요 공여국의 MDGs 내재화 정도 사례연구를 법률 및 정책문서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MDGs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 및 공여국별 MDGs의 자국 개발 정책으로의 내재화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MDGs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및 국가별 차별화 된 노력에 대한 비교분석도 본 연구의 후속과제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Post-2015 체제에 대응하는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적 지지기반 확대방안 연구도 유용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 (2008-2010). 2007.7.20.

_____ (2010a).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10.25.

_____ (2010b).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2011-2015). 2010.12.15.

_____ (2011a).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2011.3.3.

_____ (2011b).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1.12.26.

권율, 박수경 (2008). 국제사회의 MDG 이행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8, No.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은미, 김지현 (2009).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배진수, 강성호, 한희정 (2006). 유엔 MDGs(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추진전략 및 기여방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통상부 (2008).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 추진 현황.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실. (부내 업무 참고자료)

우동완, 조아영 (2009).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단 정책 및 지원사업 이행현황 종합평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임소진 (2012). 부산파트너십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연구.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0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 MDGs 보고서 한국위원회 (2011).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1 (한국어판).

정지선 (2009). 글로벌 경제위기와 MDG 이행현황.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3, No.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국제협력단 (2005). 2005년 무상협력사업계획 및 예산. 2005.2. (내부문서)

_____ (2006a). 2006년 무상협력사업계획 및 예산. 2006.2. (내부문서)

_____ (2006b). 2007년 대외무상원조 사업추진계획. 2006.12. (내부문서)

_____ (2008). 2008년 대외무상원조 사업추진계획. 2008.1. (내부문서)

_____ (2010a). 2010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2010.3. (내부문서)

_____ (2010b). 한국국제협력단 2010년 연보.

_____ (2010c).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글로벌 ODA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2010.2.25. (내부문서)

_____ (2011a). 2011년 KOICA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2011.2. (내부문서)

_____ (2011b). KOICA 교육분야 지원전략 (2011-2015). 2011.10. (내부문서)

_____ (2011c). KOICA 보건의료 전략 (2011-2015). 2011.2. (내부문서)

_____ (2012). 파라과이 국별협력전략 2013-2018. 1차 초안. 2012.3.6. (내부문서)

KDI-UNDP (2012). 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Post-2015 개발아젠다 (Asian Perspective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aking Stock, Harnessing Knowledge, Achieving Results). 컨퍼런스 발표자료 모음집. 2012년 6월 13일.

해외문헌

Addison, T., G. Mavrotas and M. McGillivray (2005a). "Aid to Africa: An Unfinished Agenda,"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7: 989-1001

_____ (2005b). "Development Assistance and Development Finance: Evidence and Global Policy Agenda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7:

819–836

AusAID (Australia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6). FAQ on Paris Declaration and Aid Effectiveness.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Canberra, AusAID.

_____ (2010a). Annual Review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2009: Improving Basic Services for the Poor.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Canberra, AusAID.

_____ (2010b). Australia Update for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Phase 2.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Canberra, AusAID.

_____ (2011a). Annual Report 2010–2011. Canberra, AusAID.

_____ (2011b). Australia and the World Bank Group: Saving Lives, Creating Opportunity. Canberra, AusAID.

_____ (2012a). Helping the World's Poor through Effective Aid: Australia's Comprehensive Aid Policy Framework to 2015–16. Canberra, AusAID.

_____ (2012b). Implementing An Effective Aid Program: Progress Report. Canberra, AusAID.

Australian Government (2010).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ustralia's Support 2000–2010.

Beyond2015 (2012). CSO Dialogue on Rio+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ost–2015. Summary Report.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Beyond: Reflections on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fter 2015. Workshop Report, 21–23 November 2011, Bonn, BMZ/DIE/PEGNet.

Carin, B. and N. Bates–Eamer (2012). Post–2015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Conference Report, Paris, France, 10–11 April 2012, Ontario, CIGI.

Carin, B. and M. Kapila (2011). Toward a Post-2015 Development Paradigm: Shaping the Next Generation of Development Goals (Bellagio Report). Conference Report, Bellagio, Italy, 20–24 June 2011, Ontario, CIGI.

Chakravarty, S. R. and A. Majumder (2008).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easuring Progress towards their Achievement."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9(1): 109–129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a). An Effective Aid Program for Australia: Making A Real Difference – Delivering Real Results, Australian Government.

_____ (2011b). Independent Review of Aid Effectiveness, Australian Government.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6a). DFID's Medium Term Action Plan on Aid Effectiveness: Our response to the Paris Declaration, Donor Policy and Partnerships Team, Policy Division.

_____ (2006b).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overnance Work for the Poor, A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wich, HMSO.

_____ (2007a). 2007 Autumn Performance Report: An Outline of Progress against the 2003–06 and 2005–08 Public Service Agreements and the Efficiency Programme, Norwich, HMSO.

_____ (2007b). Tanzania: Country Assistance Plan, Dar es Salaam, DFID Tanzania.

_____ (2009a). 2009 Autumn Performance Report: An Outline of Progress against the 2008–11 Public Service Agreement 29 and DFID 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s, Norwich, HMSO.

_____ (2009b).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Norwich, HMSO.

_____ (2011a). DFI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Volume I: Annual Report.

- _____ (2011b). DFI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Volume II: Accounts.
- _____ (2011c). DFID Tanzania Operational Plan 2011–2015.
- _____ (2012). DFI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1–12,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2).
- Evans, A. and D. Steven (2012). Beyo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greeing to a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An MGO Working Paper, Managing Global Order.
- GAC (Global Agenda Council) (2012). Getting to Zero: Finishing the Job the MDGs Started.
- Go, D. and H. Timmer (20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fter the Crisis. In S. Fardoust, Y. Kim and C. Sepulveda, Eds. Postcrisis Growth and Development: A Development Agenda for the G–20. Washington DC, World Bank.
- Hulme, D. (2007). The Making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man Development Meets Results–Based Management in an Imperfect World. BWPI Working Paper 16. Manchester, BWPI.
- _____ (200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 Short History of the World's Biggest Promise. BWPI Working Paper 100. Manchester, BWPI.
- Hulme, D. and R. Wilkinson (2012). Brave New World: Global Development Goals after 2015. BWPI Working Paper 168. Manchester, BWPI.
- Karver, J. C. Kenny and A. Sumner (2012). MDGs 2.0: What Goals, Targets, and Timeframe? CGD Working Paper 297. Washington DC, CGD.
- Kenny, C. and A. Sumner (2011). More Money or More Development: What Have the MDGs Achieved? Washington DC, CGD.
- Langford, M. (2011).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Art of the Impossible.

Presentation to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Beyond: Reflections on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fter 2015' Workshop, 21–23 November 2011, Bonn, BMZ/DIE/PEGNet.

Manning, R. (2009). Using Indicators to Encourag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IIS Report 2009:01, Copenhagen, DIIS.

Maxwell, S. (2003). "Heaven or Hubris: Reflections on the New 'New Poverty Agenda'." *Development Policy Review* 21(1): 5–25

Melamed, C. (2011). *Creating Consensu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Barriers for a Post–2015 Agreement on Development*. London, ODI.

_____ (2012a). *After 2015: Contexts, Politics and Processes for a Post–2015 Global Agreement on Development*. London, ODI.

_____ (2012b). *Putting Inequality in the Post–2015 Picture*. London, ODI.

Melamed, C. and L. Scott (2011). *After 2015: Progress 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Background Note, London, ODI.

MfDR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2007). *Third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Available at: <http://www.mfdr.org/3rdRoundtable.html>)
[Accessed: 19 April 2012]

_____ (2008). *Fourth Roundtabl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Available at: http://www.mfdr.org/Roundtables_index.html)
[Accessed: 19 April 2012]

Morrissey, O. (2002). "British Aid Policy Since 1997: Is DFID the Standard Bearer for Donors?" CREDIT Research Paper No. 02/23. Nottingham, University of Nottingham.

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11). *A Post–2015 Framework for Development: Starting a Substantive Conversation*. Workshop Report.

26–27 October 2011, Cairo, UNDP/ODI.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_____ (2003).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Good Practice Papers,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Paris, OECD.

_____ (2005). *Making Poverty Reduction Work: OECD's Role in Development Partnership*. Paris, OECD.

_____ (2011).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ollard, A. and B. Fischler (2012). *Post-2015 Policymaking: What Is Being Planned, What Might Actually Happen, and CAFOD's Current Policy Lines*. London, CAFOD.

Singh, V. K. (2011). *Emphasize Capacity Building, Inputs and Processes to Achieve Greater Impact of MDGs*. Presentation to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Beyond: Reflections on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after 2015'. 21–23 November 2011. Bonn, BMZ/DIE/PEGNet.

Stijns, J-P., C. Garroway, V. Atisophon, J. Bueren, G. De Paepe and C. Sanchez (2012). *Can We Still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rom Costs to Policies*. Development Centre Studies. Paris, OECD.

Sumner, A. and M. Tiwari (2010). *Global Poverty Reduction to 2015 and Beyond: What Has Been the Impact of the MDGs and What Are the Options for a Post-2015 Global Framework?* IDS Working Paper 348. Sussex,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K HM Treasury (2010). *Spending Review 2010*.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Chancellor of the Exchequer by Command of Her Majesty.

UN (United Nations) (2000a).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General Assembly. A/54/2000. New York, UN.

_____ (2000b).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General Assembly. A/RES/55/2.

_____ (2001).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General Assembly. A/56/326. New York, UN.

_____ (2011a).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ptions for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and Issues for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ing Agenda beyond 2015.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126.

_____ (2011b).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

_____ (2012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Guidelines for Country Dialogues – What Future Do You Want? New York, UN.

_____ (2012b).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_____ (2012c). Remarks to the General Assembly on His Five-Year Action Agenda: 'The Future We Want'.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t the General Assembly. 25 January 2012.

[Accessed: 19 June 2012. Available at:

http://www.un.org/apps/news/infocus/sgspeeches/statments_full.asp?statID=1437#]

_____ (2012d). Review of the Contributions of the MDG Agenda to Foster Development: Lessons for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Revised Draft. 20 February 2012.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_____ (2012e). Review of the Contributions of the MDG Agenda to Foster

Development: Lessons for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16 March 2012.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_____ (2012f). The Future We Want. Rio+20 Outcome Document. A/CONF. 216/L.1, 19 June 2012.

_____ (2012g). UN System Task Team to Support to the Preparation of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Draft Concept Note, 6 January 2012.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6). Shaping the 21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_____ (201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oject Document.

UN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12). Note for the High Level Panel Discussion on 'Articulating a Post-2015 MDG Agenda'. 5th Joint Annual Meetings of the AU Conference of Ministers of Economy and Finance and ECA Conference of African Ministers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6-27 March 2012. Addis Ababa, Ethiopia. E/ECA/CM/45/4AU/CAMEF/MIN/4(VII).

UNECLAC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1). Rio+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posal by the Government of Colombia for Consideration by the Participating Countries. LC/L.3366.

UN Millennium Project (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to the UN Secretary-General. New York, UNDP.

Vandemoortele, J. (2011). If No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n What? Third World Quarterly. 32(1): 9-25.

White, H. (1998). "British Aid and the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Dressing a Wolf in Sheep's Clothing in the Emperor's New Cloth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0: 151-166

World Bank (2009). Annual Report 2009.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11).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Improving the Odds of Achieving the MDGs. Washington DC, IBRD/World Bank

인터뷰

AusAID (2012). 이메일 서신 인터뷰. 2012년 5월 10일.

DFID (2012). 이메일 서신 인터뷰. 2012년 5월 29일.

KOICA (2012). 직원 인터뷰. 2012년 6월 4일.

첨부 1. OECD IDGs와 UN MDGs 비교

OECD 21세기 개발협력전략 IDGs (1996년)		UN MDGs (2001년)
경제적 복지	1. 2015년까지 절대 빈곤 비율 절반으로 감소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사회개발	2. 2015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 초등교육 의무화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 성차별 퇴치로 인한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4. 2015년까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2/3 감소	4. 아동사망률 감소
	5. 2015년까지 산모사망률 3/4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2015년까지 모든 개인의 기초 의료제도 및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가능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퇴치
환경 지속가능성 및 재생	7. 2015년까지 현재의 환경재원 손실을 효과적으로 역전(reverse)시킬 수 있도록 2005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	7.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 1996; UN, 2001

첨부 2. MDGs 세부목표 및 지표

세부목표	지표
Goal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1. 1990-2015년간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 ¹⁴⁾	1.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2. 소득격차 비율 3. 국가소비에서 극빈층 비율 (quintile)
2.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 제공	4. 고용인 1인당 GDP 성장률 5. 인구 대비 고용 비율 6. 1일 소득 1달러 미만 고용인 비율 7. 총 고용인 중 자영업자 및 가족기업 비율
3. 1990-2015년간 기아 인구 비율 반감	8.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9. 최소열량섭취 기준미만 인구 비율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4.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10. 초등학교 순 취학률 (net enrolment) 11. 초등학교 전 과정 이수 학생 비율 12. 15-24세 여성과 남성의 문자 이해율
Goal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5.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 초·중등교육 2005년까지, 모든 교육 2015년까지 제거	13. 초·중·고등학교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 14. 비농업부문 여성고용 비율 15. 국회 여성 의석 비율
Goal 4. 아동사망률 감소	
6. 1990-2015년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2/3 감소	16. 5세 미만 아동사망률 17. 영아사망률 18. 1세미만 유아 홍역 예방접종률
Goal 5. 모성보건 증진	
7.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19. 산모사망률 20. 숙련된 보건의료인에 의한 출산 비율
8.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21. 피임률 22. 청소년 출산 비율 23. 산전 관리 범위 (최소 1회 또는 4회 방문) 24. 가족계획 요구 일치도
Goal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퇴치	
9. 2015년까지 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25. 15-24세 인구 중 HIV 감염 비율 26. 고위험자의 피임도구 사용 27. 15-24세 인구 중 HIV/AIDS의 정확한 지식 보유 비율 28. 10-14세 아동 중 비고아아동 대 고아아동 학교 출석 비율
10. 2010년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HIV/AIDS 치료의 보편적 보급	29. 항레트로 치료가능 HIV 보균자 인구 비율

14) 2001년 개발 당시에는 1일 소득 1달러 기준이었으나, 2009년부터 1.25달러로 변경

11.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저지 및 감소	30. 말라리아 발생율과 사망률 31.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 5세 미만 아동 비율 32. 5세 미만 아동 중 적합한 항말라리아 약품치료 중 열발생 비율 33. 결핵발생율, 감염비율, 사망률 34. 결핵 발견사례 및 DOTS ¹⁵⁾ 치료사례 비율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12.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및 환경자원 손실 복원	
13.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의 현저한 저하	35. 산림지 비율 36. 전체, 1인당, 그리고 GDP(PPP) 1달러 당 이산화탄소 배출 37. 오존 파괴물질 소비 38. 안전한 생태환경에 사는 어족 비율 39. 전체 수자원 이용 비율 40.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 비율 41.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의 비율
14.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비율 반감	42. 개선된 식수자원 사용 인구 비율 43.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15. 2020년까지 최소 1억명 빈민가 거주자 생활여건의 현저한 향상	44. 도시 빈민가 거주인구 비율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6.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차별없는 무역 및 금융체계 발전	
17. 저개발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18. 내륙국 및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19.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	[원조] 45. GNI 기준 DAC 공여국의 순 원조 비율, 총 원조 비율,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비율 46. DAC 공여국의 기본 사회서비스(기초교육, 기초 보건관리, 영양, 안전한 물, 위생)에 대한 총 양자원조 및 분야별 양자원조 비율 47. DAC 공여국의 양자원조 중 비구속원조 비율 48. 내륙국이 GNI로 받는 원조 비율 49.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이 GNI로 받는 원조 비율 [시장접근] 50. 개도국 및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선진국 무관세 수입 비율 (가격으로 측정, 무기 수입 제외) 51. 개도국 농산품, 섬유, 의류에 대해 선진국이 부과한 평균 관세 52. GDP 기준 OECD 국가 농업 지원 추정치 53. 무역 역량 개발 지원 원조 비율

15)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course) : WHO 표준 결핵치료법

	[부채 지속가능성] 54. HIPC¹⁶⁾ 의사결정 시점에 도달한 총 국가수 및 HIPC 완료 시점에 도달한 국가수 (누적) 55. HIPC 및 MDRI¹⁷⁾에 의한 부채경감 56.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부채서비스 비율 * 위의 지표 중 일부는 저개발국, 아프리카, 내륙국,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에서 차별화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음.
20. 민간제약회사와 협력, 필수 의약품의 개도국 제공	57. 지속적 구입가능 필수약품 이용가능 인구 비율
21.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	58.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59.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60.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UN 'MDG 모니터'(http://www.mdgmonitor.org/index.cfm)

16)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채무빈곤국

17)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 다자간 부채경감 이니셔티브

첨부 3. MDGs 이행현황¹⁸⁾

○ Goal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 1990-2015년간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

UN MDGs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빈곤율은 2015년까지 15% 이하로 감소되어 MDGs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의 지속적 성장이 MDGs 빈곤감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 제공

2008년 이후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점차적으로 고용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는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도 일다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낮은 고용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취약고용’¹⁹⁾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2011년 MDGs 보고서는 경제회복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제위기 이후 취약고용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정체되었다고 보고 있다.

▶ 1990-2015년간 기아 인구 비율 반감

빈곤감소가 기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와 함께 (기아인구 비율 16%에서 정체), 개도국의 식량접근 메커니즘의 문제와 금융위기 그리고 식량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많은 개도국에서의 기아 감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남미 및 카리브제도 지역은 기아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지역 내의 국가 간 차이는 매우 크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기아 인구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아퇴치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속도에 있어서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아시아 같은 경우 아동 영양결핍 방지노력에 있어서 극빈층은 소외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 본 보고서의 최근 MDGs 이행현황은 유엔 MDGs 보고서 한국위원회가 발간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1 (한국어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 취약고용이란 비공식적 일자리, 적절한 사회보장 부족,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을 뜻한다.

○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전 세계 아동들의 초등교육 전 과정 이수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등록률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취학률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그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수업료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 여성, 분쟁지역 거주 등이 여전히 아동교육을 저해하는 이유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난민 아동들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학교출석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청소년들의 문자 이해율은 큰 발전이 있었다.

○ Goal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 초·중등교육은 2005년까지, 모든 교육은 2015년까지 제거

1999년과 2009년 사이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의 초·중등학교 진학률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중남미 및 카리브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세 지역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외 개도국, 특히 북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의 초등학교에서의 성비율의 균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의 경우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성평등 목표가 거의 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의 경우 중등학교에서의 성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이 남학생들 보다 다소 높으며, 동아시아, 중남미 및 카리브제도 지역의 중등학교의 여학생 진학률도 남학생 보다 높았다. 2011년 MDGs 보고서는 많은 지역에서 성별 불평등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여학생을 위한 교육의 기회는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여성 유급고용이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이 아직 2010년 경제회복의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의회 내 여성의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의회 내 남녀격차는 상당히 크며 개선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 Goal 4. 아동사망률 감소

▶ 1990-2015년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2/3 감소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국가의 아동사망률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 전체 평균의 두 배이며 선진국 평균의 18배에 해당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2011년 MDGs 보고서는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주요 사망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이 낮은 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의 경우 영·유아의 사망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극빈층 가정의 아동인 경우 최고 부유층 가정에 비해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2~3배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산모교육이 영·유아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홍역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은 급감하였으나, 고립지역 거주 빈곤층 아동들은 홍역 예방접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 Goal 5. 모성보건 증진

▶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산모사망 데이터의 정확도는 떨어지나, 추정치에 있어서 산모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산모사망률을 1990년에 비해 3/4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목표의 달성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산모사망에 있어서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은 큰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출산 시 의료인력 참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시아 지역의 산모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하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산모사망률이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1990년과 비교하여 출산 전 의료혜택을 받는 여성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매우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모든 개도국에서 임신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방문 진료를 받은 여성의 비율은 1990년 64%에서 2009년 81%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여성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 권장 검진회수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은 여성의 수는 아직 적정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여성보건과 관련하여, 피임의 사용은 증가하였으나 많은 지역에서 증가하는 피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계획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가족계획에 대한 원조는 감소하였다.

○ Goal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퇴치

▶ 2015년까지 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전 세계적으로 HIV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지역간의 격차가 심하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HIV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 서유럽, 중앙유럽, 북미의 HIV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HIV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신규 감염자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HIV 보균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 연장 치료의 효과로 HIV 감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도국에서 여성들의 HIV 감염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AIDS 고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기회가 증대함에 따라 이들의 학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010년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HIV/AIDS 치료의 보편적 보급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AIDS 관련 사망자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한 전 세계의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HIV/AIDS 치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상되고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2009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39%, 남성의 경우 31%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다. 또한, 신생아의 HIV 감염을 낮추기 위한 개선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저지 및 감소

말라리아 발병율은 2000년 이후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통제 프로그램의 유지가 미흡한 국가에서는 2009년을 기준으로 말라리아 발병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를 보였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비율은 유럽과 북미대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말라리아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90%는 여전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5세 미만 아동들이다.

말라리아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아동의 모기장 소유와 사용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들의 방충처리 모기장 취침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말라리아 치료약에 있어서 말라리아로 인한 증상인지 단순한 열병인지에 대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핵으로 인한 감염률과 사망률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핵과 관련된 MDGs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및 환경자원 손실 복원

산림벌채율과 자연적 산림소실의 수치는 여전히 높은 추세이나,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산림소실 및 산림지역의 용도 전용 사례는 지역적으로 격차가 심하다.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산림소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순산림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의 현저한 저하

생태계 보호구역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지역의 관리 미흡과 우선보존지역의 보호구역간 격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류보존지역의 약 26%,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지원을 위한 지역은 약 22%만이 온전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즉, 전 세계의 멸종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해양자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한계치는 이미 초과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1년 MDGs 보고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설정한 새로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비율 반감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까지의 목표달성은 물론,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중남미 및 카리브제도,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MDGs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며, 그 중 동아시아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13개국에서의 식수 접근성은 감소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빈곤지역 또는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렵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지역의 위생수준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 세계 26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화장실과 기타 개량 위생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특히, 남아시아 극빈층의 경우 개량된 위생시설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2020년까지 최소 1억명 빈민가 거주자 생활여건의 현저한 향상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개도국 빈민지역 도시거주자의 비율은 39%에서 33%로 감소하였으며, 2억명 이상의 빈민지역 도시거주자들이 개선된 식수와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가 빈민지역 개선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롭고 현실적인 국가목표와 지역목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2000년에서 2010년간 공여국의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최빈국 및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의 집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차별없는 무역 및 금융체계 발전

선진국 수입 중 개도국 및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완전 무관세 진입은 2009년에 들어서 약간의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특혜 관세의 진입은 향상되었다. 이 중 모든 개도국에 대한 완전 무관세 진입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빈국에 대한 완전 무관세 진입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또한 모든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진입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최빈국에 대한 특혜 관세 진입은 다소 상승하였다. 생산품별로 보면, 개도국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감소하였으나, 의류와 섬유에 대한 관세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1년 MDGs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 및 다양한 다자간 회담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국제 거버넌스에 의해 규제적 무역은 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수출 총소득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은 12.5%에서 3.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수출 대비 외채상환 비율은 남아시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개도국에서 평균 3.6% 증가하였다. 이는 특히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2009년의 급격한 수출하락이 개도국의 외채상환 부담률 하락경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이다.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선진지역에서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약간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지역 및 개도국 모두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현저히 증가했으며,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90%가 이동전화 이용이 가능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전 세계 인구의 2/3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은 현재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동전화와 인터넷은 개발을 위한 유력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연구자료 ODA연구 2012-16-221

KOICA 개발정책포커스 14호

발 행 2012년 7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 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화인쇄사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SN 2093-2111